

인도 무슬림 개관 및 안사리 종족
현황과 선교전략

IFR 2기 훈련팀

목 차

제 1 장	India Field Research 개요	
	1
제 2 장	2기 training team 구성	
	5
제 3 장	일정 보고서	
	7
제 4 장	지역 보고서	
	17
제 5 장	종족 보고서	
	49
제 6 장	부별 보고서	
	69
제 7 장	종족 선교전략 보고서	
	130
제 8 장	부록	

제 1 장

India Field Research 개요

India field research 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민수기 13장 1절~2절>

1. I.F.R. 이란?

India Field Research는 인도 각 지역과 종족, 사회 전반에 걸친 현장 조사를 통해 인도와 인도 민족의 실체성을 알리고 인도 복음화에 대한 실질적 전략을 제시하며 아울러 단기 미션팀 활동을 통해 현지 선교사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선교적 사명에 헌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학생 모임이다.

인도 땅을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정탐하며 그 땅이 어떠한지를 보고 선교적인 방향성을 살피며, 그 땅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알린다.

2. I.F.R.의 목표

- 팀원 모두가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로 서게 한다.
- 인도땅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와 관심을 알고, 사람들에게 그 땅이 어떠함을 알린다.
- 모든 팀원들이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서게 한다.

3. I.F.R.의 역사

- 2002년 김군오 교수님 중심으로 1기 훈련 팀 6명이 모집
- 2002년 1학기 여름방학에 문화 사역팀(챔버, 대전 찬양팀)과 연합및 리서치
- 2002년 2학기 미션팀 구성 (MIC, PITCHPIPE)
- 2002년 2학기 겨울방학 미션팀(MIP) 태국과 인도에서 문화사역
- 2003년 1학기 IFR 2기 훈련팀 4명 모집
- 2003년 1학기 여름방학에 7명이 인도 북부 안사리 종족 리서치

4. I.F.R.의 훈련 과정

(1) 학기 중 훈련

10주 간의 훈련을 학기 중에 실시한다. 훈련 내용으로 매주 목요일 특강 시간을 통해 기본적인 영성 훈련을 하고 이외에 리서치 대상 지역과 종족에 대한 사전 문헌 조사, 조사표 작성, 리서치 실습을 한다. 매일 밤 10시 기도회를 하며 말씀 읽기와 묵상, 지체들간의 교제를 나눈다.

이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군사로써의 소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익히고 인도에 대해서 알며 우리 안의 연합을 이룬다.

(2) 방학 중 합숙 훈련

방학 후 10일 간의 합숙 훈련 시간을 가진다. 기본적인 훈련 이외에 인도과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팀 내의 공동체 훈련 등을 통해 리서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아침 묵상과 10시 기도회를 동일하게 하며, 공동체의 역할들을 서로 연습하고 필드의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며, 핸드 북을 작성한다.

(3) 필드 리서치

실제 조사 지역에 들어가서 준비한 조사표를 바탕으로 현지 인터뷰와 문헌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한다. 또한 말씀 선포와 워십댄스, 찬양, 대적기도 등을 통해 그 땅의 악한 영을 묶는 영적전쟁을 수행한다.

(4) 보고서 작성

리서치 후 정탐의 열매인 보고서와 동원자료를 만든다. 각 팀, 조, 부 보고서와 종족 보고서, 선교 전략 보고서를 만들고 선교 동원을 위해 사진 프리젠테이션, 비디오 자료들을 만들며 사진 전시회와 동원 보고 예배를 준비한다.

(5) 선교 동원

작성된 보고서와 간증문 등을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고 각 교회와 단체에 가서 준비한 미디어 자료와 간증 등을 통해 동원사역을 담당한다.

(6) 제자 양육 체계

인도 현지에 다녀온 훈련생들이 현장에 다녀온 것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욱 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소그룹 성경공부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말씀으로 양육한다.

5. I.F.R의 비전

- 훈련과 리서치를 통해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를 양성한다.
- 영성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 Field Researcher, 21세기를 이끌어갈 Christian Leader를 양성한다.
- 학생의 자발적 선교체계를 확립하고 한동대학교 선교 모임들의 연합을 통해 한동 선교 센터로 발전시킨다.
- 인도 선교사와 연구자, 관심자들을 연결하는 사이버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 한국 교계에 새로운 단기 선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지의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드리고 그 땅의 필요와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한다.
- 사람들이 인도 땅을 알고 잊혀진 땅과 종족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고, 중보 할 수 있게끔 돕는다.

6. 기존 단기선교와의 차이점

단기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활동 결과의 철저한 사후 관리이다. 기존 한국의 단기 선교 팀은 사전 준비가 부족하고 활동의 결과를 정리, 보고하지 않아 선교 자료나 정보의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적잖이 받아 왔다.

한동대 I.F.R은 이러한 기존 단기선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팀을 구성한다.

- 팀을 조기에 구성하여 충분한 기도와 훈련, 연합의 기간을 갖는다.
- 대학의 선교 모임으로서 선교활동에 학문적인 접근법을 활용한다.
- 사전에 지역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해의 시간을 가진다.
- 소수의 조별 활동을 원칙으로 조별로 현지 안내인과 사역자와 연합하여 지역학적 연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 충실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지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활동전의 준비과정과 리서치 후에 보고서 작성과 동원활동을 더욱 중시한다.

제 2 장

2기 Training team 구성

지도 교수: 김군오 교수님

1. 학기 중 훈련 운영체제

디렉터 : 이선연 (00)

섬김이 : 구선미(98)

김대은(98)

손혁준(00)

훈련생 : 김진홍(97)

김지성(97)

박청해(02)

최 훈(03)

2. 필드에서 역할에 따라

디렉터 : 이선연(00)

기 장 : 김진홍(97)

예 배 부 : 박청해(02)

찬양인도 : 손혁준(00)

문 서 부 : 최훈(03)

로드메니저/회계/총무: 김지성(97)

미디어부 : 김진홍(97)

구선미(98)

물품관리 : 구선미(98)

제 3장

일정 보고서

일정 보고

(1) IFR 2기 전체일정 개략

1) 조직 및 훈련

과송예배	2003/06/19(목)
개강예배	2003/03/06(목)
동원예배	2003/03/13(목)
IFR 보고예배	2003/03/17 - 03/21
인터뷰	2003/03/24 - 03/27
OT, 1차캠프	2003/03/28 - 03/29(금,토)
10주 훈련	2003/03/28 - 05/29(매주 목)
부산 리서치 실습	2003/05/02 - 05/03(금,토)
2차 캠프	2003/05/22(목)
러브피스트	2003/06/07 이스턴힐
종강예배	2003/06/12(목)

2) 10일 합숙 및 출국

10일합숙	2003//06/25 - 2003/07/06 공대 1호관 110실
출국	2003//07/07

3) 리서치

다르방가 리서치	2003//07/08 -2003//07/13
바라나시 리서치	2003//07/14-2003//07/17
델 리 리서치	2003//07/18-2003//07/20
사하란푸르 리서치	2003//07/21-2003//07/24

4) 귀국 및 보고서 합숙

귀국(홍콩일정)	2003//07/25-2003//07/28
보고서 합숙	2003//08/01 - 2003//08/05
LTC	2003//08/20 - 2003//08/23

(2) 세부 일정

7월 6일~7일 인도로 출발

1) 7월 6일

19:00 인천 연수 한사랑 교회
19:30 예배
21:00 저녁 식사(교회에서 섬겨 주심.)
22:45 예배
25:00 취침

2) 7월 7일

6:00 기상, 세면, 청소, 짐정리
7:05 출발(연수 한사랑교회 차)
8:30 인천 국제 공항 도착
11:00 이륙(CATHAY PACIFIC - CX417기인천 발 홍콩 행)
12:00 기내식(점심식사)
** 홍콩 시간**12:46 시계 조절(한국 시간 13:46→홍콩 시간 12:46)
13:01 홍콩 공항 착륙(외부 온도 섭씨 31도)
예배, 쉼(아픈 기장님과 디렉터 자매님을 살펴주세요.)
21:40 비행기 탑승 시작(CATHAY PACIFIC-CX753기 홍콩 발 인도 뉴델리 행)
24:15 기내식(저녁 식사 격의 야참)

7월 8일~13일 다르방가 리서치

3) 7월 8일

인도 시간 0:42 (홍콩 시간 3:12→인도 시간0:42)
0:43 도착(외부 섭씨 29도)
2:55 숙소 도착(텔리 역 앞 메인 바자르에 있는 MYHOTEL로 오토릭샤 타고)
10:00 아침 묵상
12:45 맥도날드
13:50 PIZZYPHUT
16:35 BARISTA(TEACHER 사주심,인도 SELF 점, 깔끔, 찻집)
17:35 건너편 공원, PALIKA BAZAR(지하 바자르)
18:20 파송(언정, 98 김영배 - 기독교 문화, 종교 문화, 삶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

18:55 올드델리역 도착
21:25 출발(SHAHEED.EXP)델리 발 다르방가 행

4) 7월 9일

12:50 점심 식사
13:50 점심 목상
17:45 저녁 식사
20:00 전략 회의
20:55 예배 start

5) 7월 10일

0:10 다르방가 도착
0:45 아쇼코 호텔
8:00 기상 및 세면
11:00 모임, 목상
12:00 전략 회의
12:40 점심 식사
13:45 리서치
16:15 숙소로
18:30 저녁 식사
23:15 취침

9) 7월 11일

8:00 혁준, 지성형제 대학에서 자료 받아오기
8:55 목상
오전 조사
16:00 선교사님과 회의
16:42 박물관
17:15 저녁 식사
19:30 회의

10) 7월 12일

7:40 목상
9:30 교수님 특강(Dr. AMARNATH SHA, 다르방가 철학교수님)
11:30 John 선생님 댁
13:30 점심 식사
15:00 우루드 바자르 리서치
18:00 숙소로
20:00 저녁 식사
20:30 전략회의

11) 7월 13일

7:00 기상
8:30 예배
11:30 목사님 특강(지성형제님 표 끊기, 청해 선미자매님 숙소)
13:00 점심 식사
15:30 숙소 뜸
16:00 버스(다르방가 발 파트나 행)
21:00 파트나 도착
21:20 선생님 만남
22:05 센터 도착

7월 14일~17일 바라나시 리서치

12) 7월 14일

1:12 취침
8:00 기상, 세면, 식사
11:45 출발(파트나 발 바라나시 행 기차)
16:27 역 도착
18:10 SHANTIGUEST HOUSE 도착
19:20 저녁 식사
20:00 전략 회의
23:05~45 예배

13) 7월 15일

6:30 기상
8:00 목상, 휴식
14:00 점심 식사
15:00 말씀 통독, 예배
16:50 조사
20:00 저녁 식사
22:15 예배
22:55 전략 회의
23:35 끝

14) 7월 16일

7:30 목상
8:00 아침 식사
9:30 1조(훈, 선미, 혁준) 출발
11:30 2조(나머지+ 기장님) 출발
12:30 POST OFFICE 앞 합류(안사리 공장 견학)
16:30 점심 식사
17:00 전략회의
18:15 쉼
19:00 예배
20:10 파송(혁준,진홍,선연,선미)
20:30 나머지 저녁 식사
23:00 파송 받으신 분들 귀환

15) 7월 17일

5:00 기상
5:32 갠지스 강 배타기
7:40 목상
8:10 아침 식사
9:00 갠지스 강밧기...(훈,혁준,진홍,지성,영배)
11:15 숙소 뜸
12:15 리서치
16:10 저녁 식사
18:45 출발(바라나시 발 텔리 행)

7월 18일~20일 텔리 리서치

16) 7월 18일

8:00 텔리 도착
9:15 DECENT HOTEL
11:40 재권,교수님 합류
13:20 점심 식사
14:50 선생님 댁 도착
18:15 숙소 도착
18:35 자매 저고리, 형제 옷 사러 나감
20:20 숙소 도착

20:37 저녁 식사
22:20 예배
23:10 전략 회의
23:30 취침

17) 7월 19일

7:25 기상
7:50 목상
8:30 리서치
9:55 출발(3조)
17:00 숙소 도착
19:30 선생님댁 식사
23:00 숙소 도착
23:37 예배 시작
24:05 전략 회의

18) 7월 20일

7:40 목상
9:30 예배
13:00 점심
14:45 쉬
19:25 저녁 식사
21:05 인디아 게이트
23:00 취침

7월 21일~24일 사하람푸르 리서치

19) 7월 21일

7:40 기상, 목상
11:50 버스(텔리 발 사하람푸르 행)
17:00 사하람 푸르 도착
19:30 숙소 도착(SWAGAT HOTEL)
22:00 예배
22:50 전략 회의
23:30 취침

20) 7월 22일

7:15 기상, 목상
9:00 아침 식사
9:30 리서치
13:00 점심 식사
17:30 리서치
19:30 저녁 식사
22:00 예배
23:00 전략 회의
24:00 취침

21) 7월 23일

7:30 기상, 목상
8:10 아침 식사
9:30 리서치(훈, 선미, 선연, 재권-지성, 혁준-진홍, 청혜)
13:00 점심 식사, 쉬
15:15 전략 회의
16:35 FOR JESUS SCHOOL(선생님 특강)
20:25 저녁 식사
22:00 예배
23:00 전략회의
23:15 취침

22) 7월 24일

7:30 목상
8:20 씻기
9:00 아침 식사
9:20 전략 회의
10:50 짐싸기
11:30 CHECK OUT, 쇼핑
16:20 기차 이동(사하람뿌르 발 텔리 행)
22:40 호텔(HOTEL SWEET DREAM)
23:00 저녁 식사
24:15 예배
24:35 취침

7월 25일~8월 일 귀국 및 보고서 합숙

23) 7월 25일

8:00 기상
8:10 목상
8:40 씻기
9:30 자유시간
12:30 목사님 댁
16:50 선생님 댁 식사
20:35 짐정리
22:30 공항
23:10 예배
24:30 애찬식

24) 7월 26일

3:00 사진 촬영, 씬
4:15 재권형제 파송
7:20 비행기(CX752, 텔리 발 홍콩 행)
시간 변경(텔리-12:23, 홍콩-2:53)
15:10 홍콩 도착
18:00 홍콩 제일 교회 도착
18:35 CFR 합류
20:30 저녁 식사
21:30 전략 회의
22:15 예배
23:15 간식, 씻고 쉬기

25) 7월 27일

7:00 기상 및 짐 정리
7:30 목상
8:05 아침 식사
9:00 주일 예배
11:30 점심 식사
12:35 도풍산 소풍
19:00 저녁
22:20 PEAK도착

23:55 전략 회의

24:10 취침

26) 7월 28일

CX417기로 귀국

보고서 합숙

27) 7월 29일 - 8월 5일

제 4장

지역 보고서

I 개요

1. 보고서 목적

인도에서 약 80%에 육박하는 힌두교에 비해 20%정도 되는 무슬림들은 소수 그룹에 속하지만 세계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어 나간 무슬림까지 합쳐서 인구 통계로 보면 이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힌두교에 비해 인도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 통계학상으로 보나 세계 선교 역사로 보나 인도 무슬림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다. 이번 조사 지역은 안사리 종족이 사는 곳인 다르방가, 바라나시, 델리, 사하란푸르 이다. 안사리 종족이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떠하며, 이 땅의 필요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냄으로써 한국교회에 알리며 이땅을 중보하는 자들이 일어서는 것을 소망하며, 이 보고서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길 소망하는 장기 사역자가 나오길 소망한다.

2. 보고서 구성

종족에 대한 조사표(부록 참고)를 기초로 한 각 항목에 인터뷰와 관찰조사 및 강의를 통한 조사내용을 적는다.

- I. 도시별 공통항목
- II. 다르방가
- III. 바라나시
- IV. 사하란 푸르
- V. 델리

3. 조사 개요

(1) 조사 지역

다르방가, 바라나시, 사하란 푸르, 델리

(2) 인터뷰 대상

- 가메슈와르 썩카 다르방가 산스크리트 University'의 비아카 교수
- Maithili University의 Department of Mathematics 교수님들
- 산스크리트 대학 밑의 문법의 닥터 사시나하트자하

- 쾰지브 쾰하인(미틸란 대학, 25세,MCA전공-MASTER IN COMPELETE APPLICATION)
- MD. NASEEM SEKH과 SHAMAMA SABRI ANSARI-다르방가
- Dr.AMARNATH JHA (MITHILA UNIVERSITY PHILISOPHY PROFESSOR)
- MOHD HASAN ANSARI 바라나시 National State 공장 사장
- Mubarak Ali, 25 / Md Khalid Korim, 25(잠비아 밀리아 이슬라미아 대학 MBA 전공)
- church of north India(CNI)-목사님(david Johnson)
- DR. M. NAIM ANSARI-사하란푸르에서 만난 의사
- 사하란푸르 CNI에서 만난 법관

(3) 조사기간

- 7월 8일~13일 다르방가
- 7월 14일~17일 바라나시 리서치
- 7월 18일~20일 델리 리서치
- 7월 21일~24일 사하란푸르 리서치

(4) 조사 방법

2-3명이 한팀을 이루어 한명은 인터뷰를 하고 한명은 질문을 작성하고 메모, 중보기도를 하며 나머지 한명은 주위 상황 정리와 미디어를 찍는 방법으로 리서치가 이루어 졌다. 델리를 제외한 세 지역의 연결점이 없었기 때문에 안사리 종족이 사는 곳을 알기 위한 조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 졌고 연결통로를 통해 알게 된 안사리 종족의 상점이나 마을에서 종족 조사표를 근거로 한 인터뷰 위주로 리서치가 진행이 되었다.

다르방가와 사하란 푸르에서는 현지 사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그 지역과 무슬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나 안사리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직접 그 종족인 사람과의 인터뷰와 관찰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면에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완전히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에 대한 한계를 보고서 중간에 다루면서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II 도시별 공통항목

1. 생활문화

(1) 식생활

북인도에서는 밀가루로 만든 로띠(짜빠띠, 난 등)가, 남인도와 벵갈에서는 쌀밥이 주식이다. 주로 인도 서북쪽에서 밀을 생산하고 남해안 연안에서 쌀을 생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북쪽 지방의 밀가루 음식은 중동이나 유럽의 식문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남인도에서 주로 먹는 쌀은 우리 것과 맛이 다르다. 인도의 쌀은 우리가 ‘안남미’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갱이가 길고 메진 쌀이 대부분이다. 인도의 쌀밥은 우리의 밥에 비해 찰기가 없고, 다른 재료들을 첨가하기도 하며, 밥을 짓는 방법도 달라 우리나라의 밥맛과는 다르다. 인도 사람들은 쌀이 어느 정도 익으면 밥물을 바깥으로 부어버려 완전히 밥알들이 따로따로 놀도록 짓는 것을 선호한다.

1) 짜빠띠(Chapati)

밀가루 반죽을 우리의 빈대떡 모양으로 얇고 평평하고 둥글게 모양을 만들어 간을 하지 않고 화덕에 구운 것으로 싱겁고 담백한 맛이 나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인도 주식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난(Nan)은 짜빠띠 보다 정제된 밀가루를 사용하는데 보통 우리가 먹는 피자보다는 적으면서 도톰하며, 발효시켜 만든 것이라 약간 부풀어 있으며 양이 꽤 된다. 빠라타(Paratha)는 여러 곡물과 양념을 가미해 맛을 낸 것으로 따와(무쇠판)에 기(Ghee, 정제된 우유 기름) 등의 기름을 발라서 구워 낸 짜파띠의 사촌이라 하겠다. 뿌리(Puri)는 짜빠띠보다 작은 크기로 철판에 굽는 것이 아니라 기름에 튀겨서 부풀린 빵으로 주로 남부 지역에서 많이 먹는다. 짜왈(Chawal)은 일반적인 쌀밥을 말한다. 뿔라오(Pulao)는 향신료를 알맞게 섞어 지은 볶음밥의 일종이고 비리야니(Biryani)는 뿔라오보다 보다 더 고급의 볶음밥으로 향료와 과일, 야채, 육류 등을 섞어 지은 것으로 지역마다 맛과 첨가 재료가 다양하다.

2) 마살라(Masala)

우리의 간장, 고추장, 된장에 버금가는 것이 바로 인도의 마살라이다. 마살라는 주로 식물의 열매, 씨앗, 잎, 뿌리 등으로 만들어진 향신료로 그 종류도 아주 많으며 거의 모든 인도음식에 첨가된다. 인도 요리에서는 재료에 열을 가하고 나서 여러 가지 마살라를 섞어 만든 종합 향신료를 넣어 향기를 내고 맛을 내는 것이다. 반찬에서 스낵까지 인도 음식의 대부분에 마살라가 빠지지 않는다. 보통 인도음식은 맵고 자극적이라는 선입관이 있지만, 실제로 모든 지역에서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을 즐기지는 않는다. 특히 북쪽에 비해 남쪽이

덜 자극적인 음식을 즐긴다. 인도음식의 특징은 향신료이다. 그 중 ‘인도의 맛’이라 할 정도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살라’이다. 인도인들 체취에는 마살라가 배어있고 인도음식이 우리에게 쉽게 적응이 안 되는 것도 바로 이 마살라 때문일 것이다.

3) 탈리(Thali)

탈리는 ‘큰 접시’를 의미한다. 금속제의 커다란 접시, 즉 여러 가지 반찬을 담기 위해 칸막이가 된 오목하게 들어간 쟁반 같은 곳에 쌀밥이나 짜빠띠 등의 주식과 달(콩죽), 커리 종류, 아짜르(절인 밀반찬), 다히(요거트) 등을 담은 인도 정식이다. 역의 식당이나 열차 안에서의 식사도 탈리이고, 일반 식당에서도 탈리의 형식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많다. 정식으로 탈리를 주문하면 1인분의 식사를 비교적 싸게 먹을 수 있다. 남인도에서는 바나나 잎 위에 밥과 반찬을 놓아주기도 한다.

4) 달(dal)

달에는 짜나(chana), 아르하르(arhar), 마수르(masur), 우라드(urad), 뭉그(mung) 등이 있다. 이러한 콩류는 인도 사람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먹거리인 것이다. 달은 콩을 물에 넣고 삶은 후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어 수프처럼 만들어 짜빠띠나 밥과 함께 먹는다. 밥이나 짜빠띠에 이 달을 섞어서 먹는 것이 인도 식사的基本이다.

5) 사브지(Sabzi)

사브지는 야채 커리라고 할 수 있다. 야채 한 두 가지로 만드는 커리의 총칭이다. 주재료로는 감자(Alu), 완두콩(Mattar), 가지(Baingan), 토마토(Tamatar), 시금치(Palak) 등이다. 고기 요리 잘 알려진 것처럼 힌두교에서는 쇠고기를 먹지 않고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부정한 것이라고 금한다. 그래서 인도에서 제일 흔한 육류는 양고기와 닭고기이다. 고기를 향신료로 삶은 전통적인 커리에는 머튼 커리(Mutton Curry), 치킨 커리(Chicken Curry)가 있다. 그밖에 향신료나 조리법에 따라 다양한 고기요리가 있다.

6) 머튼 꼬르마(Mutton Korma)

다히(요거트)에 담근 고기를 향신료나 채소와 함께 푹 끓인 요리다. 가장 인기가 좋은 것은 판두리 치킨(Tandoori Chicken)이다. 이것은 커리 요리가 아니라 요거트에 절인 고기에 각종 향신료를 넣고 인도식 전통화덕에 넣어 기름을 쪽 빼서 구워낸 것으로 매콤한 맛을 내거나 마살라 향을 첨가한 것으로 맛 또한 일품이다. 주로 북부 인도에서 큰항아리처럼 생긴 판두르(tandoor)라는 진

흙화덕을 이용하여 요리를 한다. 판두르의 깊은 바닥에 장작불을 피워 충분히 달군 다음 그 안에 식품을 넣어 굽는다. 판두리 치킨은 닭을 요거트와 여러 가지 향신료에 재웠다가 쇠꼬챙이에 꿰어서 판두르에 넣어 구운 요리로, 향신료가 속까지 잘 배어서 맛이 아주 향기롭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지만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7) 다히(Dahi)

짙은 맛의 요거트의 일종으로 여기에 설탕이나 소금 그리고 기타 향신료를 섞어 먹기도 한다. 아짜르(Achar)는 야채나 과일을 절인 피클의 일종으로 시고, 맵고 짜다. 껌알라 등의 남인도 음식으로 쌀가루를 하룻밤 재워 콩과 쌀가루를 반죽해서 철판에 얇게 구운 것으로 가벼운 끼니를 때울 때 적당한 음식인 도사(Dosa), 마살라로 맛을 낸 감자를 삼각형으로 생긴 얇은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튀긴 사모사(Samosa) 등이 대표적이다.

8) 차(茶)

인도는 세계 최대의 차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인도홍차 산지는 다질링(darjeeling, 다질링에서 나는 차로 ‘홍차의 샴페인’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고급에 속한다. 3, 4월에 수확한 것이 최상품이다), 아쌈(assam, 인도원산지 홍차로 짙은 향과 맛이 난다), 시킴(sikkim), 닐기리(nilgiri) 등이 있다. 인도의 차는 홍차에 카르다몬(혹은 생강)을 넣고 물을 부어 끓인 다음 우유와 설탕을 넣어 마시는 것이 인도 국민차 ‘짜이’다(어느 지역에서는 마살라를 첨가하기도 한다). 인도인들은 단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넣어 너무 달게 마시지만, 그들은 이 짜이를 마시며 하루 노동의 피로를 푼다. 달고 자극적인 맛이 나는 게 특징이다. 도자기류의 1회용 그릇에 팔기도 하는데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서 인지 요즘은 하얀 플라스틱용기에 판다. 짜이를 만드는 방법은 적당량의 물과 알맞은 분량의 짜이가루 그리고 생강 등을 넣고 끓인다. 갈색의 짜이 색깔이 우러나오면 알맞은 분량의 설탕과 우유를 넣고 3-4분 정도 더 끓인다. 이때 숟가락으로 저어준다. 다 끓은 다음 고운 채에 걸러서 따라 마시면 된다. 최근에는 짜이를 간단하게 마실 수 있도록 1회용 티백(Tea Bag)으로 제품이 나오고 있어 간편하게 마실 수 있다.

(2) 의복

정한 의복과 부정한 의복의 개념이 있는데, 이는 카스트에서 나온 개념이다. 보통 바느질한 옷은 부정한 옷, 바느질 하지 않은 옷은 정한 옷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사리, 남성에게는 도피가 정한 의복

1) 여성의복

● Sari

사리-인도 전역. 입는 방법이나 형태 지역 차. 사리의 끝을 앞에서 뒤로 넘기는 경우 남부 지방, 뒤에서 앞으로 넘기는 방법 북부 지방. 외출 시 사리의 남는 부분을 머리위로 뒤집어 쓰기도 한다. 긴 천으로 되어 있다. 바느질이 되어있지 않고, 몸에 옷을 두르는 형태. 폭이 1미터 내외, 길이 보통 5-6미터 정도, 긴 것은 12미터이상. 맨살위에 두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졸리라고 하는 타이트한 상의와 함께 입는다.

● 살와르 까미즈 (Salwar Kamiz)

인도 북부 지방 의상. 주로 까슈미르와 뽕잡에서 입는다. 현재는 인도 전역에서 즐겨입는 옷이 되었다. 이 옷은 무갈시대에 생겨난 옷으로 원래 무슬림의 여인들이 입던 옷이었지만, 지금은 북부 지방에서 종교와 관계 없이 입죠. 윗옷은 까미즈라고 하고, 바지를 살와르라고 하죠. 까미즈는 일종의 긴 셔츠인데요, 몸에 밀착되어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형태의 것도 있고, 약간 헐렁한 형태의 것도 있다. 또한 그 길이가 매우 다양하다. 살와르는 **빠자마(Pijama)** 또는 **빠자마 (Pajama)**라고도함, 헐렁하게 입음)라고 하는 바지처럼 헐렁하게 입는다. 그리고 **오르니(Orhni)**라고 하는 일종의 스카프와 함께 입기도 한다. 오르니는 어깨에 늘어뜨리기도 하고, 머리에 쓰기도 한다. 일상복 파티복 겸용이다.

● 쭈리다르 꾸르따 (Churidar Kurta)

쭈리다르는 살와르와 거의 유사하지만, 엉덩이 부분이 좀더 타이트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살와르가 까미즈와 한 짝이라면 쭈리다르는 꾸르따(kurta)와 짝이다. 남녀 공용이다.

● 가그라 (Ghaghra)

인도의 북부에서 입는 옷. 북부 중에서도 서부인도 즉, 구자라트와 라자스탄의 여인들이 즐겨 입는 옷. 바느질 한 옷. 펼치면 도너츠 모양이 되는 큰 치마. 입으면 많은 주름이 잡힌다. 화려한 자수를 넣는다. 그리고 이 치마는 통상 발목이나 정강이의 중간 정도의 길이로 해서 입는다. 구자라트와 라자스탄에 발달한 홀치기 염색이 주로 사용된다. 또한 가그라는 **네파(Nefa)**라고 하는 허리띠로 허리를 묶어서 입기도 한다. 가그라는 오르니나 **두빠따(Dupatta)**같은 술과 함께 입는다.

● 인도의 북동부 지역의 여성들은 티벳의 전통의상을 입는다. 또한 전통적 무슬림의 여인들은 **부르카(Burka)**라는 긴 베일의 옷을 입는다.

2) 남성 의복

- 도띠 (Dhoti)

사리와 아주 비슷. 인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볼 수 있다. 바느질 하지 않은 한장의 천으로 되어있는 정한 옷. 사리보다는 짧고 룡기 보다 길다. 주로 흰색을 입는다. 도띠는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입는다. 한끝을 다리안에서 다리 밖으로(결국 다리 사이로) 걷어올려 허리춤에 고정시켜 입는다. 도띠는 그 위에 보통 꾸르따를 입는다. 여성의 경우와는 달리 남성들은 양장을 많이 입는다. 그래서 보통의 서양식 셔츠와 바지를 입는 경우가 아주 많다.

- 룡기 (Lungi)

인도 남부의 전통 복장. 오늘날은 남녀 모두 입는 대중적인 옷이 되었다. 룡기는 허리에 둘러 발목까지 늘어뜨리는 옷으로 도띠보다 그 길이가 짧다.

- 셰르와니 (Sherwani)

인도의 남성이 입는 일종의 코트. 주로 북부의 귀족층에서 입었던 옷이다. 무갈 시대부터 시작된 이 옷은 주로 델리와 바라나시의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졌었다. 셰르와니는 몸에 맞게 입는 옷이고, 길이는 무릎이나 그 보다 길게 해서 입는다. 앞부분에 단추를 달아서 열릴 수 있게 되어있다. 이 옷은 남성의 옷 중에 우아한 편이며 주로 행사 때 많이 입는다.

- 꾸르따 삐자마(Kurta Pijama)

인도의 북부지방 남성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옷. 꾸르따와 삐자마로 나뉜다. 꾸르따는 상의, 보통 무릎 정도의 길이로 입지만 엉덩이까지의 길이로 입기도 한다. 윗부분은 단추가 있어 단추로 잠그고, 소매는 긴 것이 대부분이다. 색은 전통적으로 흰색이 많지만 요즘은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의 꾸르따도 많이 입는 편이다. 삐자마는 빠자마라도 하는 바지다. 헐렁하게 입는 바지인데, 허리에 끈을 묶어 입는다. 전통적으로 흰색이 많다.

- 북부 남성들은 살와르 까미즈와 매우 유사한 **빠탄 수트(Pathan suit)**를 많이 입는다. 인도 전역에 걸쳐 일종의 긴 자켓인 **아썬칸(Achkan)**을 볼 수 있다. 아썬칸은 인도 전역에서 볼 수 있지만, 주로 북부에서 많이 보인다. 아썬칸은 긴 소매로 길이는 무릎이나 그 밑까지이며, 앞쪽에 단추가 달려 있다.

3) 기타 의복

- 모자류

머리에 두른 터번을 **사파(Safa)**라고 한다. 사파는 보통 화려한 색깔의

긴 천으로 되어있다. 라자스탄에서 쓰기 시작했고, 현대에 와서는 라자스탄 이외의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시크교도들이 쓰는 것은 **싸르다르(Sardar)의 터번**이라고 한다. 마하라슈뜨라의 남성들은 **간디 토피(Gandhi Topi)**를 많이 쓴다. 여성들은 머리에 **오르니(Orhni)**나 **두빠따(Dupatta)**라고 하는 일종의 술을 쓴다. 사리를 입은 여성이라면 사리의 끝부분을 덮어쓰기도 한다.

- **신발류**

전통적으로는 맨발.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맨발의 사람들은 별로 없죠. 인도인들은 **주띠(Jutti)**와 **모즈리(Mojri)**라고 하는 신발을 많이 신는다. 또한 마하라슈뜨라의 작은 마을을 기원으로 하는 **콜라뿌리 짜팔(Kolhapuri chappal)**을 많이 신는데, 일종의 슬리퍼다.

4) **이슬람 의복**

아랍어와 파키스탄의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전문 용어들과 다양한 이슬람 문화로 디자인에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이슬람의 의상은 사막의 모래바람과 열기를 막기 위해 쓰기 시작한 아랍권의 모자는 챙이 없는 것이 특징. 이것은 앞드려 얼굴을 땅이나 마루 바닥에 대는 기도 자세로 인해 모자에 챙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 지금도 이슬람 군인들의 모자에는 챙이 없다. 머리에 베일을 쓰는 이유는 이슬람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성적 존재로 인정해 왔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해석이 곡해됐다. 여성은 성욕이 강하고 조절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인식됐고, 여성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을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유혹하는 것으로 간주됐다. 보수적 이슬람 시각에서 여성은 유혹이며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인식됐다. 탈레반 정권은 이러한 보수적 시각을 더욱 극단으로 밀고 나아갔으며, 이로 인해 모든 여성은 외부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8세 이상 소녀들의 교육 금지, 여자대학 폐쇄, 취업 금지, 부르카 착용 등 극단적 탈레반의 여성정책들은 이러한 탈레반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들의 베일은 나라나 종교적 성향, 계층, 연령, 취향에 따라 다양하다. 튀니지 등 상대적으로 개방된 북아프리카와 일부 페르시아 만 지역 이슬람 여성들은 흰색이나 다양한 색의 두건 모양 ‘히잡(hijab)’을 선호하거나 아예 쓰지 않기도 한다. 이란에서는 얼굴을 가리는 검은색 ‘차도르(chador)’를 착용하며, 보수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탈레반 정권 하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온 몸을 뒤덮는 ‘부르카(burka)’를 입는다

이슬람 의복에 대한 설명			
			
hijab(히잡)	burqah(부르카)	niqab(니캅)	chaddor(차도르)
두건모양으로 알라가 명령한 것으로 코란에 언급된 의상이다. 얼굴만 내놓은 쓸 것으로 상체만 가리는 것이 특징. 입고 벗기가 쉽고 시리아 등 아랍권 여성들이 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것으로 눈을 포함해 신체의 모든 부분을 가린다. 눈에 는 보통 면사포와 같은 천을 사용하며 손에는 장갑을 끼기도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아라비아반도 일부 및 이집트의 베두인족 여성들이 주로 착용한다.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리는 면사포 같은 것으로 khimar 혹은 머리를 가리는 다른 덮개를 사용했을 때는 눈 아래를 가린다(가슴까지 가리거나 혹은 목까지 가리기도 한다). 주로 파키스탄과 모로코의 여성들이 쓰는 베일. 색이 다양한 게 특징.	'burqah'와 비슷한 헐렁한 외투의 일종이며, 혹은 'duapta'와 비슷한 것이다. 망토 정도의 길이로 이란 여성들이 주로 쓴다. 검은색이 많다. 속에는 양장을 입는 경우가 많다.
Dupatta	khimar	shalwar-kamees	Abayah
커다란 어깨에 걸치는 천(shawl, 숄)으로 신체의 상반신을 가린다. 65cm * 110cm의 크기가 대부분이나 35cm * 110cm 같이 작은 크기 도 있다.	삼각형 혹은 원형의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로 가슴까지 가린다.	무릎 혹은 발목까지 이르는 헐렁한 바지로 보통 쇼올(duapta)와 함께 착용한다.	머리와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을 가리는 긴 외투 같은 옷.

			
케피야	페즈	터번	Jilbad
목을 덮을 정도로 쓰는 남성의 모자. 아라파트 팔레스타인자치정부수반의 검은 점박이나, 사우디 왕가의 빨간 점박이, 쿠웨이트의 흰색 무늬의 모자가 여기에 속한다. 빈 라덴의 한 쪽 끝을 길게 늘어뜨린 형태는 케피야의 변형으로 아프가니스탄 남성들이 주로 쓴다. 탈레반들은 종교적 엄숙함을 강조하기 위해 검은색을 주로 쓴다.	챙 없는 남자 모자. 이 모자만 써도 되고 그 위에 터번을 두를 수도 있다. 터키 모로코에서 주로 사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남성모자도 페즈의 변형.	천을 둘둘 말아 쓰며 주로 이란 남성들이 애용한다. 터번이라는 용어도 이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시크 터번—인도의 시크교도들이 각이 지게 쓰는 터번. 종교적인 이유로 자르지 않은 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무슬림의 터번과는 다르다.	머리와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를 가리는 길고 품이 넓은 옷이나 코트.

(3) 주거

1) 일반

인도에서는 집을 짓는 것 까지도 가옥을 짓는데 사용한 재료에 따라 정-부정에 따라 뿔까와 짚차로 나뉘어진다. 뿔까라고 하는 것은 벽돌이나 돌과 같은 내구 물질의 가옥을 말하고, 햇볕에 말린 흙벽돌이나 흙블럭으로 지은 집은 짚차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은 식사의 경우와 같이 정-부정의 차이는 없다. 다만 화장실의 위치에 따라서 화장실이 본 채에서 떨어져 있거나 따로 만들지 않은 집이 정결한 가옥이다. 가옥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고자 한다면

붉은 흙이나 석회, 소똥 등을 담에 발라 놓는다거나 아궁이 주위나 툇마루 끝, 중앙 마당 등에 발라 놓으면 된다.

2) 주택의 형태

가옥은 지붕의 형태와 가옥의 배치모양을 기준으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지붕은 경사가 있는 것이고 배치모양을 직사각형으로 한 것으로, 긴 벽면에 입구가 있어 평평하게 들어가는 식이 일반적이다. 보통 강우량에 600mm 전후 이하의 건조 지대에서 평평한 지붕의 가옥이 많이 있으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경사가 진 지붕을 가진 가옥이 대부분이다. 경사가 있는 집은 지역에 따라 각 지역의 기후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에 따라 지붕을 잇는 방식이나 사용되어지는 재료가 차이가 난다. 또 북쪽의 산지를 제외한 북부 인도 전역과 동부에서 남으로 이어지는 지역에서는 가옥의 구조가 앞부분에 사랑방을, 집안에는 중앙마당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것은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안방의 거주 공간에 들어가기가 어렵게 만든 배치이다. 따라서 아주 작은 집을 제외하고는 담이 전체 가옥을 둘러싸고 그 한쪽 면에 문이 달려있으며 그 문을 중심으로 방을 나란히 짓고 그 중앙에 중앙마당이 있다. 이때 중앙마당은 단순히 주위의 방들이나 별채들을 연결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곳은 작업장이면서 합동가족이 다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한쪽 면에는 우물이 있어 세탁이나 목욕을 하기도 하고, 한켠에서는 취사도 하며, 또 다른 귀퉁이에서는 툇시(tulsi)나무를 심어 아침 저녁으로 의례행위를 한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가족 구성원의 관계는 물론 이거니와 외부 손님과의 교류 또한 이 중앙마당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방이나 별채는 모두 중앙마당을 향해 약간 높게 지어진 툇마루가 놓여있어 개인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여성용 방과 남성용 방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친족이나 매우 친한 동성의 친구가 아니면 이 여성용 방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가난한 집일 경우라도 커튼이라도 쳐서 그 구분을 하고 있다.

(4) 연료

소 배설물이 중요한 연료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의 배설물을 손으로 뭉쳐서 한 곳에 모아두고 건조시킨다. 이렇게 건조시킨 배설물을 연료로 사용한다.



III 다르방가 지역보고

1. 일반 개요

(1)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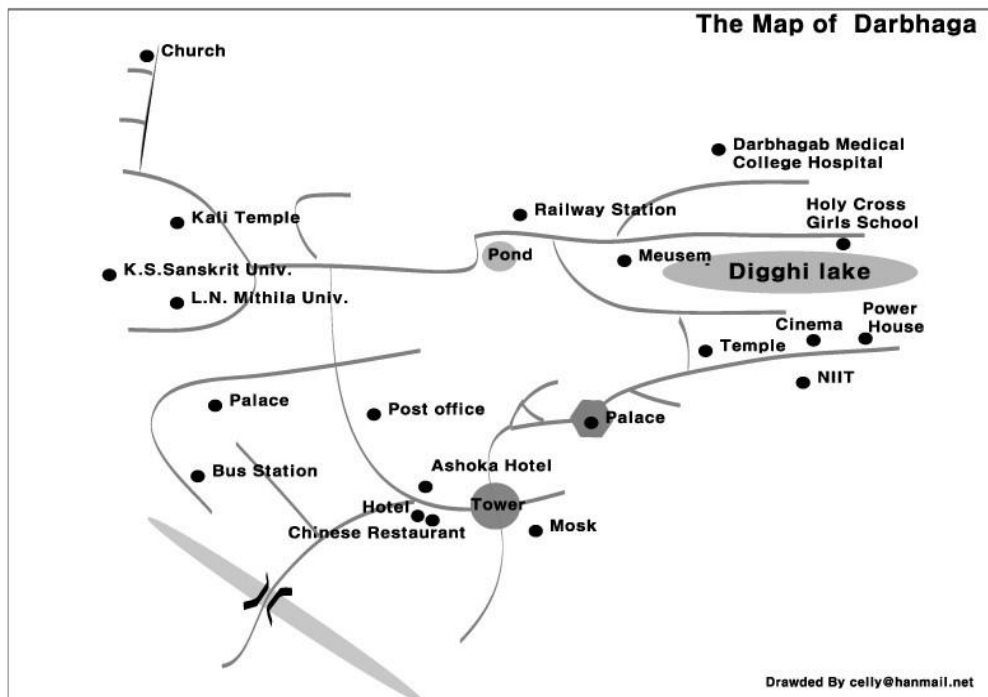
약 5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이다. 주민등록이 없어서 정확한 인구 현황은 알수 없다. 인구이동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텔리나 뭍바이 같은 큰 도시로 이동하지만 그 수는 그리 크지가 않다고 한다. 인구 이동의 또 다른 형태는 대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 라자스탄과 같은 조금 더 큰 주로 이동하기도 한다. Mithila대학, 산스크리트대학의 많은 교수님들이 남부에 있는 학교에서 degree를 따오기도한다. 산아제한 정책이 없고 평균적인 자녀수가 5명정도이다. 힌두 78%, 무슬림 21%, 기독교인 150명 정도이다.

(2) 위치

평지로 이루어져 있고 도시주변에 많은 수의 작은 강이 흐르고 있다. 다르방가는 비하르주 10대 관문 도시중에 하나이고, Mithila지역내의 중심도시로 Mithila언어를 사용하며 예전에 하나의 독립된 국가와 같았다. 연결되는 대도시로는 비하르의 수도인 파트나가 있고 버스로 5시간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 북쪽으로는 네팔과 가깝고 거리는 대략 60km정도이다. 과거 한 왕국을 이루는 미틸라컬쳐-힌두 문화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은 작은 도시에 불과하다.



(3) 도시약도



(4) 기후

7,8월에 홍수가 발생한다. 비가 많이 오는 것도 홍수의 한 이유가 되지만, 그 보다도 नेपाल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 때문에 강이 범람하는 것이 큰 홍수 발생원인이다. 홍수의 규모가 생각이상으로 크고, 독의 필요성이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नेपाल 정부와 교류 없어서 독을 만들수 없다.



2. 정치

자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비하르 주의 수도인 파트나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다르방가 정부행정기관이 income office와 police office밖에 없었다. 주 정부(25개의 주별)가 정책을 잘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등교육과 전기 시설, 위생시설(하수시설)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하나 다르방가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도시 하지부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다. 다리가 건설된다면 사할사드까지 6시간이 걸리는 것을 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의 전반적인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선거에서 대표를 뽑을 때 같은 카스트 계급을 뽑기 때문에 정책 자체가 확고하지 못하고 발전이 느리다는 것이다. 비하르 주도 마찬가지이다.

3. 사회

(1) 단체

비하르주내에 100개 이상의 NGO단체들이 있지만 10%정도만 올바르게 활동을 하고있고, 나머지 90%는 국제적 자금 지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절히 일하지 못하고 있다.

4. 경제

(1) 일반

경제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은 SHOP을 운영하는 비즈니스맨들이고, 작은가게는 월 4000~5000Rs를 번다. 이 수입에 부양가족이 8~10명이 의존한다. 다르방가 사람들의 주 소득원은 작은 상점이며, 부자라고 할만한 사람들은 없다.

(2) 세금

1년간 최대 수입의 30%까지 세금을 거둬들일수 있고, 소득이 50000루피 이상 되는 사람들만 세금을 낸다.

(3) 산업구조

농사가 80%를 차지하고 쌀,밀,사탕수수를 생산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소수가 government관련일을 하고 있다. 주 생산품으로는 fish, 망고, makhana이다. 이외에 무역을 할만한 천연자원, 특산품이 없기 때문에 무역은 이루어 지지 않는다.

5. 생활문화

(1) 주거

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다. 공터에 먼저 집을 지으면 그 땅이 자신의 땅이 되어버린다. 이는 정부에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유산인 미틸라 성안에도 마구잡이로 집을 짓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 지역의 문화유산 많이 훼손되었다.

6. 교육

(1) 진학률

초등학교 진학률은 50%, 중고 30% 이다. 대학교는 많이 잡아서 20%정도의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2) 대학

마두가이나 씨마이스트 주변 네 도시로부터 이 쪽 대학으로 온다. 대부분 졸업 후 직업을 구하기 힘들다. 소수는 호텔 매니저나 메디컬 컬리지에서 일한다.

1) 가메슈와르 썬카 다르방가 산스크리트 University

- 산스크리트 언어만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이고, 학생수는 만명 정도 된다. 학생들은 비하르 주의 90개의 college에서 지원하여 들어온 학생들이다. 설립자는 ‘가메슈와르 썬카’이고, 1961년도에 설립되었다.



2) 메디컬 컬리지

3) 3개의 대학교

4) 42개의 college(단과대학)

7. 위생보건

(1) 위생

상하수도 시설 :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하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바닥에 쓰레기와 하수가 넘치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는 흙과 하수와 쓰레기가 범벅이 되어 거리가 엉망이다. 배수가 되지 않아 검은 하수물을 고여있다. 골목 골목 사이로 들어가면 배설물까지 더해 하수의 썩는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한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다르방가에서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2) 보건

다르방가 안에 큰 병원(Darbhangga medical college hospital)이 하나 있고, 작은 개인 병원이 많이 있다. 큰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수는 도시 전체 인구에 적은 비율의 사람들만이 이용하고 있다.

8. 교통/통신

(1) 교통

릭샤(오토/자전거), 자전거, 소달구지, 마차가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리ك샤를 이용한다. 다른 도시를 오갈때는 기차와 시외버스를 이용한다. 도로가 제대로 정비 되어있지 않다. 대부분 비포장이거나, 포장된 길은 시멘트 포장이나, 벽돌 길이 어저있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다.

(2) 통신

전화는 STD(국제) / ISD(국내)로 나뉘져 있고 전화방이 따로 있어 어디서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9. 현대화

(1) 전기시설

전기가 하루 2시간만 공급된다. 발전소가 있지만 도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개발을 하지 않는다. 전기공급의 문제가 공장을 설립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잘 사는 집이나 상가에는 국가에서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서 차별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고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촛불을 이용하고 있다.

10. 기독교

(1) 기독교 현황

다르방가에 있는 기독교인 1000명 정도이며, 교회는 5개가 있다. 그중 2개는 지역 교회이며, 3개의 가정교회가 있다. 활동에 위협 없고 자유롭다고 말하지만 행동속에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보였다. 인도의 기독교인 사이에서 인사를 할때는 ‘절머시’라고 하는데, 의미는 ‘주님을 찬양합니다’이다.

● 교회

- MASHIHI MANDALE
- D.C. CHURCH
- GEMS CHURCH(GOSPEL ECOING MISSIONARY SOCIETY)
- PASL

성경학교와 신학교는 없다. 현지 목사님은 다른 지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된다. 이번에 만난 현지 목사님은 DEHARI-ON-SONE 의 HEAD OFFICE에서 교육받았다. 다르방가 안에 가난한 무슬림을 대상으로 사회사업을 하고 있는 NGO(DESCIPLE SHIP CENTER)가 있다. 힌디어로 된 성경이 있다.

(2) 복음 수용의 과정

주로 Healing 사역을 통해 복음이 수용된다. 기도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모임을 통해서 복음이 수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된다.

IV 바라나시 지역 보고

1. 개요

(1) 도시개요

바라나시는 시바신과의 연관으로 해서 더욱 성스럽게 여겨지는 갠지즈강을 끼고 3천여년 이전에 형성된 이후 오늘날까지 단절됨 없이 번잡한 도회지로 이어져 오는 곳으로 원래 '빛나다'라는 뜻인 카쉬로 불리어 온곳이다. 바라나시라는 오늘날의 이름은 시의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흐르고 있는 바루나강과 아시강에서 비롯된것으로 추정되는데, 영국이 통치하던시절엔 베나레스라고 영어식으로 표기되어 지금도 카쉬와 함께 이곳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종종사용되고 있다.

강물에 목욕함으로써 죄가 씻겨지는 것이라면 물 속에 사는 고기야 말로 최고의 성자가 아니겠냐는 빈정거림에도 불구하고 갠지즈 강가에서 정화의 의미를 품고 목욕하는 사람들이 3천여년을 이어가며 매일같이 재현되고 있는 힌두의 성지로서 바라나시, 세계 그 어느 도회지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이곳처럼 종교적인 관습이나 의식과 완벽하게 뒤섞여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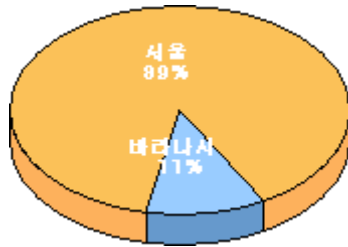
종교를 토대로한 도회지로서 오랜 역사를 지닌 바라나시는 따라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하여 오며 많은 인물들의 일화를 간직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범어의 단어 변화를 외우느라 고생하는 학자를 목격하게 된 상카르차르야가 그 학자에게 범어에 능통하게 되는 것은 신과의 합일을 이루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냉엄하게 일깨웠다는 일화나 칼리다사가 범어를 익히기 위해 이곳 바라나시로 유학을 왔었다는 일화 그리고 이곳에 머물며 현대 인도의 범국가적 언어가 된 힌디어의 테계를 잡고 발전시켰던 톨시다스 등의 일화는 이곳이 오랫동안 학문의 중심지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널리 인용되는 것이다.

인도의 고전음악을 서구에 알리고 널리 보급시킨 최고의 유공자로 꼽히는 라비상카르로 대변되는 이곳의 예술적 전통은 오늘날에도 활발하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음악과 춤을 공연하는 크고 작은 연주회가 끊임없이 진행되며 뿌리 깊은 예술의 고장으로서의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2) 인구 및 지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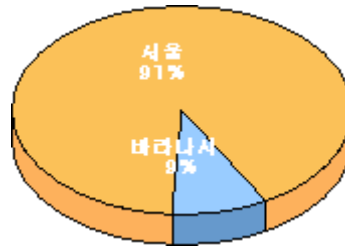
- 1) 도시인구 : 1030863 명
- 2) 도시면적 : 78 km²
- 3) 인도 북부에 자리하고 있고 동서로 넓게 퍼져있는 우타르 프라데쉬주에 있는 도시이다. 우타르 프라데쉬주는 인도에서 4번째로 큰주이다

서울대비 도시면적비교



[서울시의 약 0.128 배]

서울대비 도시인구비교



[서울시의 약 0.099 배]

(3) 역 사 (1900년 이전)

3천년을 이어온 힌두성지로서의 바라나시는 석존이후 번성했던 불교의 세월과 11세기 무렵에 이곳으로 진출하여 무굴 제국까지 이어진 회교의 세월을 겪으며 많은 것이 바뀌는 시련을 넘겨야 했는데 특히 무굴 제국의 말기인 아우랑제브시대에는 거의 모든 바라나시의 힌두 사원들이 파괴되거나 회교사원으로 바뀌는 곤욕을 치러야 했었다.

무굴제국의 몰락으로 1738년에 시작될수 있었던 작은 힌두왕조를 기점으로 바라나시는 다시 힌두권이 되었지만 그 동안 이곳에 확고하게 자리잡게된 회교세력과 공존해야하는 입장이 되었고 이처럼 두 종교로 엇갈려 있는 바라나시는 오늘날까지 두 종교의 갈등이 심화되어 표출되기도 한다

(4) 도시기후 개요

금월(1월)의 바라나시 기상정보

1월의 최고기온은 23℃이며, 최저기온은 10℃이므로 온도차가 13℃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환절기 처럼 밤낮의 기온차가 크므로 청결을 유지하고 감기에 주의한다. 또한 이 지역의 금월 평균강수량은 25mm로 100mm이하이므로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지역은 아니다.

도시기온 및 강수량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최저기온	10	12	17	22	27	28	27	26	25	21	13	10
최고기온	23	27	33	39	42	39	34	32	33	33	29	24
평균강수량	25	22	12	4	12	92	306	342	226	60	10	3
서울평균강수량	22.9	24.6	46.7	93.7	92.0	133.8	369.1	293.9	168.9	49.4	53.1	21.7

2. 관 광

(1) 갠지즈강

바라나시의 가장 볼만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갠지즈강의 풍경이다. 해가 뜰무렵 강변의 갓트(강변과 이어지는 계단길)를 걸어보면 강변가득히 메운 순례자들의 모습이 장관이다. 강변을 따라 여러이름의 갓트가 있고 이 갓트들은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밖에 바라나시에서는 여러사원들을 만날수 있다. 황금사원, 바랏트 마타 사원, 툴시마나스 사원등이다. 또한 베나레스 힌두대학네의 바랏트 칼라 바반또한 볼만하다.



(2) 갠지즈강의 갓트들 (Ghat)

갓트란 육지에서 강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계단길을 말한다. 완만하게 휘어지며 남북으로 흐르는 갠지즈강에 몸을 담그는 것은 바라나시에 순례온 사람들이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의식이어서 100여개를 헤아린다는 갓트들이 바라나시 시가지와 연결되는 강의 서편에 줄을 지어 설치되어 있다. 갓트의 대부분은 18세기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중에는 자이뿌르, 우다이뿌르, 팔리아르, 마이소르 그리고 바라나시 등 부유했던 힌두 왕조의 맥을 이은 마하라자들이 각자의 저택을 조성하여 만든 갓트들도 있다. 이들이 만든 갓트는 중세분위기가 불췌 풍기는 그들의 궁전과 어우러져 있어 특유의 정취를 진하게 풍기는 역할을 한다.

다사스와메드 갓트는 100여개에 육박하는 바라나시의 갓트들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중심부 위에 있다. 창조의 신 브람마가 열마리의 말을 제물로 바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의 이 갓트는 바라나시의 갓트중에서 가장 활발한 곳의 하나이다. 먼 길을 밟아 순례오느라 지친 몸을 풀어주는 안마사들, 의식을 치르는데 도움을 주는 뿌자리 바바들, 손님을 끄느라 정신이 없는 뱃꾼들, 신성한 강물을 이용하여 끓인차를 파는 아이들 그리고 순례객들에게 적선할 기회를 주는 불구자들 위주의 동냥 행렬 등이 하루종일 분주하다.

외국인들에게 바라나시의 풍경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갓트가 바로 화장터로 이용되는 두 갓트이다. 남쪽에 있는 하리쉬찬드라 갓트는 규모도 작고 인기도 별로 없지만 나무를 살돈

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하는 전기를 이용한 화장터가 이곳에 있다.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마니카르니카 갯트는 바라나시를 대표하는 화장터로 이곳에선 시체들이 끊임없이 태워지고 있다. 화장터를 구경하는것은 자유지만 사진촬영은 금지되고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3) 황금사원 (Golden Temple)

이곳은 시바신을 모시는 사원으로 강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원 건물은 아우랑제브에 의해 파손되었는데 1770년 말에 다시 재건된 것으로 힌두교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 금으로 덧칠된 싯카라 형식의 지붕을 가지고 있어 황금 사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힌두교인이 아니면 직접들어갈수는 없으므로 강가의 숙소 옥상에서 보면 잘 보인다.

(4) Sarnath Dhamekh Stupa, 5C (녹야원 다메크 대탑)

Sarnath는 불교 4대성지(룸비니, 부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의 하나이다. 종교분쟁시 반드시 이곳에서 싸우게 되는데 힌두교와 이슬람의 극한 분쟁지역이다.

바라나시에서 북동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석가모니가 처음으로 설법한 Sarnath (녹야원)가 이곳에 있다. 온갖 꽃과 보리수가 울창해 석가의 가르침을 듣는 듯 하며, 옛날 신라 혜초스님의 저서 "왕오천축국전"에도 이곳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적혀 있다.

그 경내에는 6세기경에 만들어진 Dhamekh Stupa(벽돌조의 원통형 대탑)이 우뚝 서 있다. 탑돌이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28개의 크고 작은 사원들의 유적들이 지금도 신비스럽게 남아 있으며, 그 외에도 사원들의 돌덩어리들이 산재하여 그 옛날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

이 곳 Sarnath는 부처님과 부처님 최초의 설법, 부처님과 그 법을 받드는 무리를 포함 佛·法·僧 삼보(三寶)의 형성과 함께 비구니를 제외한 최초의 승가가 생겨났던 장소로 그 의미가 있는 곳이다. 생노병사(生老病死)의 체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Sarnath Archaeological Museum

B.C. 3세기에서 12세기 사이의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 고고학 박물관이다. 바라나시 시내에서 10.4km 떨어진 녹야원과 인접해 있다.

이 박물관의 매력은 Ashokan pillar로부터의 뛰어난 capital이다. 그것은 근대 인도의 주(州)상징물인 사자가 네 등을 맞대고 있는 Ashokan 심볼을 가지고 있다.

다른 부분들에서는 여러 Sarnath시대-Mauryan, Kushana, Gupta 그 이후의 많은 형상들과 조각품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5-6세기 다양한 자세의 Buddha 형상들과 9-12세

기 Saraswati, Ganesh, Vishnu와 같은 힌두신들의 이미지를 가진 Sarnath에서 발견된 초기 Buddha 이미지이다.

3. 장례문화

장례 준비는 먼저 시신의 입에 갠지스강에서 떠다 놓은 성수를 붓고 흰옷으로 갈아 입힌 후 그 위에 오렌지색이나 초록색, 또는 붉은색의 천을 덮는다. 이 천은 색깔에 따른 특별한 구분은 없다. 그리고 그 시신 위에 간단한 꽃 장식을 한다. 장례 준비가 끝난 시신은 <타트리>라고 하는 대나무 틀 것에 들려 화장터로 운구된다. 여기서 사람이 죽은지 3



시간에서 6시간이내에 운구된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운구 될 때 유족들과 친지, 마을사람들은 “람 람 사테헤”라고 외치며 시신의 뒤를 따르게 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신의 뜻을 따른다”는 말이다. 화장터까지 여자는 동행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장할 때 쓰이는 나무는 집안 어른이 구입하게 되는데 재산의 정도에 따라 나무의 양이 정해진다. 시신이 반도 타기 어려울 정도로 적은 양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형편도 되지 않으면 밤에 시신을 갠지스강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화장할 시신은 갠지스강에 잠깐 담겼다가 꺼낸 후 나무단위에 올린다. 이때 상주가 시신 주위를 7바퀴 돌며, 쌀, 꽃, 향료 등을 뿌리고 머리부분에 불을 붙인다. 화장하는 동안 인부는 시신을 이리저리 뒤적이며 소각시키는데 막판에 이르러서는 나무 막대기로 시신의 머리를 때려 터트리기도 한다. 머리가 깨져야만 그 영혼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렇게 시작된 화장이 완전히 마무리 되기까지는 약5~6시간이 소요되며, 장작의 불이 꺼지고 나면 인부들이 그 재를 광주리에 담아 강물위로 버리는 것으로 모든 장례절차는 끝나게 된다. 화장상주는 머리를 삭발하게 되는데 머리중심은 남겨둔다. 삭발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빨리 잊고 떠나 보내라는 뜻이고, 머리 중심을 남겨 두는 것은 인간의 정령이 통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화장이 끝난 후 망자에 대하여 갖는 제사 따위의 의식은 없다. 죽은 후 13일째 되는 날 친지들이 모여 ‘프리오도시’라고 하는 만찬을 즐기며 망자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일하다.

V 사하란푸르 지역 보고

1. 일반개요

(1) 위치

우타르 프라데쉬; 주의 북부에 위치한 도시, 갠지스(Ganges)강과 야무나(Yamuna) 강 사이의 도압 지방 북쪽에 위치한 직사각형 모양의 지역으로서 북쪽으로 쉬밸릭(Shivalik) 고지가 솟아 있으며, 2000년에 새로 추가된 3개 주 중 하나인 우트란첼(Uttranchal)주와 동쪽으로 맞닿아 있다. 남쪽으로는 무자파르나갈(Muzafarnagar) 지역과 접한다. 북위 29.34~30.21, 동경 77.9~78.14

(2) 면적

전체 면적 3,860km²

(3) 기후

우타르 프라데쉬 주의 평균 기후와 비슷하지만 북쪽 고지대 때문에 차이가 있다. 열대 지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산맥 때문에 열대 기후로 보인다. 사하란푸르는 강가(Ganga: Holy Water, 갠지스 강) 평원 상류 쪽에 위치하며, 건조한 편잡 평원과 습한 중부 강가 평원 사이는 반 습기 지역이다. 평균 기온은 섭씨 23.3도이며 6월이 가장 덥고, 1월이 가장 춥다. 습도는 우기에 최고 72%~85%에 이르며, 여름에 이보다 낮을 때는 29%~51.5%이다. 사하란푸르의 동부 지역이 서부보다 더 습하며, 겨울에는 상대 습도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인다. 기압은 기온과 반비례해서 7월에 가장 낮고, 12월에 가장 높다.

(4) 자연환경

야무나 강은 사하란푸르에 매우 중요한 강이다. 그 외에 소라니(Solani), 힌돈(Hindon) 등 여러 하천도 사하란푸르의 재건설에 도움을 주었다. 사하란푸르 지역의 모든 하천은 야무나 강이나 갠지스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5) 유래와 역사

과거 아리아인들이 편잡 지방에서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점령했던 최초의 지역 중 하나로 추정된다. 1997년 우타르 프라데쉬 주의 한 지구로 승격되었다. 1340년경에 무갈 제국의 여름 피서지로 처음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있고 영국 시대에는 중요한 군사기지로 사용이 되기도 했다. 무슬림 성자인 샤 하란 키쉬티(Shah Haran Chishti)에 의해 지어졌다고 전해진다.

(6) 민족

인도 북동부 지역 사람들은 우리 나라와 같은 몽골리언계인 티벳과 네팔 쪽 혈통이다. 인도에는 이외에도 유럽인의 외모가 역력한 아리안(Aryan)계인 신드(Sindh)와 펀자비(Punjabi) 두툼한 느낌의 용모를 지닌 벵갈인, 중앙 아시아 사람들과 흡사한 카시미리, 작고 검은 비하리, 포르투갈 쪽 피가 많이 섞인 고아 사람들, 아프리카 흑인을 방불케하는 검은 피부의 께탈라 사람들, 검고 두툼한 느낌의 용모지만 체구가 당당한 다라비아 언족인 타밀나두 일대의 사람들 등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용모의 사람들이 섞여 있다.

(7) 지역

사라한푸르 내의 주요 지명은 나쿠르(Nakur)와 디오반드(Deoband)이고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 1) 쉬벨릭 고지 지역
- 2) 바바르(Bhabar)지역
- 3) 벵갈(Bangar)지역
- 4) 카다르(Khadar)지역

(8) 인구

- 1) 전체 District 인구
 - 2,309,029(1991년)
 - 2,848,152(2001년)
- 2) City인구
 - 452,925(2001년)

2. 경제

(1) 산업

사하란푸르는 기본적으로 농업 지역이다. 전체 면적의 70%이상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목초지로는 거의 적합하지 않다. 농업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다. 특이하게도 최근 식용작물의 경작지 면적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량 생산이 상당히 늘었다. 사탕수수를 재배하게 되면서 상업 작물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했다. 다양한 농업기반 산업과 가내 공업이 발달해 있다. 설탕 산업 및 제지, 판지 산업도 존재한다. 대규모 사탕수수 생산으로 인해 설탕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목각 산업이 유명하다. 재료로 사용할 나무는 쉬벨릭 지역에서 가져온다.

1) **식품산업** : 곡물, 야채, 과일, 우유, 유제품, 사탕수수

2) **농업기반 산업** : 설탕, 구르(gur), 면직물, 담배

- 사하란푸르 주변의 농장에서는 사탕수수를 주로 재배하며, 망고, 쌀, 밀, 조아, 리치 등을 재배한다. 또한 아루가(aruga)라 불리는 일종의 작은 사과와 레몬도 재배한다. 사탕수수는 3월에 심어, 11월에 거둔다. 어떤 농장의 경우 부업으로 숯을 제조한다. 거두어 들인 사탕수수는 설탕공장에 파양 제조 후 텔리로 이동한다. 그래서 인도의 다른 지역, 파키스탄, 스리랑카, 유럽지역으로 수출한다. 베하트(Behat)라고 부르는 망고벨트 지역에는 8000종류의 망고가 있으며, 기네스북에 좋은 맛과 많은 생산량으로 기록이 올라 있다. 망고나무 하나에는 최대 5,000개의 망고가 열린다. 망고는 텔리로 수송되어 유럽과 런던, 아랍국가로 수출한다

3) **공업 제품** : 종이, 목각품

- 우드마켓(Wood Market)은 Pul Banjaran지역에 위치하며 100개 이상의 공장이 밀집해 있다. 거의 100%무슬림 지역이다. 이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상인조합이 있다. 모든 제품은 수공예품이다. 청동, 나무, 구리와 은 등이 장식용 재료로 사용된다. 나무 조각품의 경우, 망고나무와 장미나무가 주로 사용되는데 장미나무가 가장 품질이 좋다고 한다. 필통, 보석함, 연필꽂이, 코란받침대, 체스판, 등 다양한 수공예품을 생산한다. 목각품 제작을 위한 특별한 훈련학교는 없으며, 각 공장에 직접 들어가 견습생활을 해야한다. 공장 내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작업을 하며 일을 배운다. 이 어린아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아이들이다. 목각제품은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하는데 바이어들이 직접 와서 사 간다고 한다.

4) **생산물/천연자원**

- 광물 자원은 매우 빈약하다. 쉬벨릭 고원에서 나는 석회암이 거의 유일한 주요 광물이다. 구릉 지대의 급류지대에서도 훌륭한 석회암을 얻을 수 있다. 건축 자재로 쓰일 만큼 단단한 돌은 거의 생산되지 않으며, 솔라니, 힌도느 스크라오 하천의 바닥에서 도로에 깔 자갈을 얻는다. 저지대와 수로 관개 지대에서는 레(Reh)라고 불리는 염분 풍화작용이 발견된다. 사하란푸르에서 생산되는 중요한 식용작물에는 밀, 쌀, 옥수수, 자와(jawar), 바자라(bajara), 사탕수수, 유지종자(oilseed:기름을 짜낼 수 있는 종자), 면, 황마 등이 있다. mini-gourds와 lacquats도 유명하다.

(2) 교역대상 / 상황

목각 제품을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쿠웨이트, 스웨덴,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한다. 전국 각지로 농업 및 공업 제품을 보내며 석탄, 철, 금, 시멘트 소금, 석유 제품, 비료, 유지 종자, 가죽 등을 편잡, 하리아나, 라자스탄, 델리, 비하르 지역에서 들어온다. 베하트(Behat)의 두세리(Dussehri)와 칼라미 망고(kalami Mangoes)도 여러 나라에 수출된다.

3. 지역시설

(1) 중앙펄프제지 연구수 (Central Pulp & Paper Reserch Institute:CPPRI)

인도 정부 산하의 상공부, 산업정책장려부서에 속한 자치기관이며 1980년에 설립되었다. 인도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며 고급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관이다

(2) 사하란푸르제지기술연구소(Institute of Paper Technology, Saharanpur)

루르키 대학(the University of Rorkee)의 독특한 학문적 부서로서 1964년 이래로 제지산업에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학문적 프로그램을 제공

(3) 원예연구 및 훈련센터(Horticulture Reserch and Training Center)

역사가 오래된 연구소이다. 원예부서, 냉동저장부서, 화학부서, 생화학 및 무선 탐지부서, 열매보존부서, 마이크로생물학 부서 등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

(4) 우편전신훈련센터(Post and Telegraph Training Center)

독립후, 우편전신부서에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직원들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생기자 1951년 4월에 사하란푸르에 훈련센터를 건립

(5) 무자파라바드 토양 보존 훈련 센터(Soil Conservation Training Center, Muzaffarabad)

1956년 무자파라바드에 설립, 농업경제학, 작물학, 토지 정보, 토양실험, 토양 및 비료회 결핍원 실험 등에 관련된 업무 담당.

(6) 중앙과일연구소(the Central Fruit Reserch Institute)

(7) 식물원(the Government Botanical Gardens) 1817년 설립

(8) 항공훈련센터(aviation training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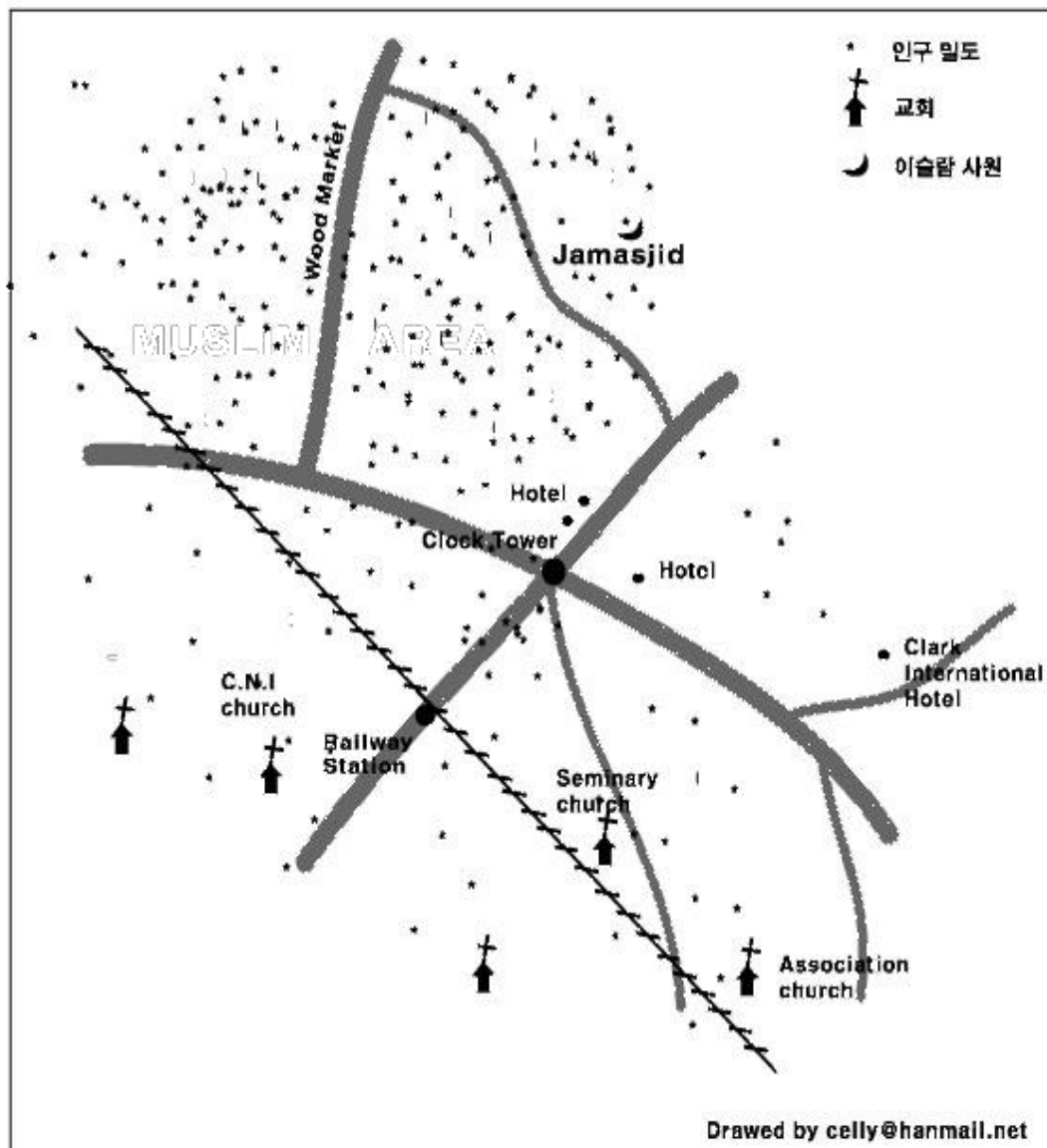
4. 교통

사하란푸르는 교통 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여러 도로와 철로의 교차점으로서 Mussoorie, Chakrota, Kadarnath, Badrinath, Gangotri 등 북쪽의 관광지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동부의 Lucknow, Allahabad, Varanasi, Muzaffarnagar, Meerut, Ghaziabad, Delhi, Punjab 등지로 가는 도로의 통로이기도 하다. 바바르 지역은 산과 강이 많고 평탄한 지형이 아니므로 교통 수단이 발달되지 못한 반면, 벵갈 지역은 토지

가 비옥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도로와 철도선이 발달했다.

5. 영적 Mapping

The Spiritual Map of Saharanpur



VI 델리 지역 보고

1. 인디아 게이트(India Gate)

1921년에 착공하여 10년만에 완성된 인디아게이트는 세계 1차대전때 사망한 90,000여 인도병사의 이름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높이가 42m에 달하는 우람한 규모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규모의 또 다른 기념문은 1972년 파키스탄과의 전쟁 때 사망한 전몰자들을 추모하며 인디라 간디(Indira Gandhi)가 세운 것이다. 인디아 게이트를 마주보는 곳에 대통령궁이 있다. 이 지역은 힌두와 무슬림이 정치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 곳이며, 인도의 모든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정치적 중심지이다.



2. 자마마지드(Jama Masjid)

회교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는 샤 자한(ShahJahan)의 마지막 작품인 찬드니 측 구역(붉은 성의 동쪽편에 위치한 광장)의 회교 사원이다. 이곳은 20,000여 명이 동시에 알라신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인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1644년에 착공하여 1950년에 완공되었다. 인도 무슬림의 영적 중심지로 정기적으로 큰 규모의 집회가 열리는 곳이다.

3. 니잠무딘(Nizamuddin)

수피즘 사원을 다녀왔다. 수피즘이란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이 이슬람과 합쳐진 형태의 종교이며, 이 곳 사원은 니잠무딘이라는 곳으로서 수피 성자 니잠무딘의 무덤을 섬기는 곳이다. 인도 이슬람교의 50%가 이런 수피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한다. 수피즘의 형태를 띠는 곳으로 터키도 있으나 이곳이 훨씬 강하다고 한다. 특별히 이곳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곳으로 니잠무딘 사원의 원장이 선교사님의 친구였다. 사원 안에 들어가자 큰 연못이 보였다. 그 곳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며 씻는다고 한다. 심지어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다이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를 지닌 연못이었다. 그 곳에는 병든 자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 때로는 힌두교의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병이 낫기를 바란다고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피들이 점도 봐 준다고 한다. 이것은 정통 이슬람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라고 한다. 무덤이 있는 곳으로 가자 경전을 읽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보니 무덤 앞에서 수피들이 돌아가면서 마이크를 대고 경전

같은 것을 외고 있었다. 특별히 우리가 방문한 날은 한달에 한번 있는 행사가 있는 날이어서 약 60여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무덤 방 입구에는 도네이션 박스가 놓여 있었고, 수피들을 위한 것들인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무덤은 방 같은 곳에 벽으로 둘러 싸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 방을 다시 색칠하고 보수하고 있었다. 또한 부채질을 해 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도 보였다. 무덤 입구에는 영어로 여자는 못 들어간다고 쓰여 있었다. 반바지를 입은 사람도 무덤에 못 들어가게 하였다.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들은 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바치고 방 좌우 벽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수돗가에서 씻은 후 무덤 안에 꽃과 설탕으로 싸여 있는 과자를 사서 무덤에 바친다. 방안에는 시체가 누워져 있고, 천으로 그것이 덮여져 있었다. 그곳에는 니잠무딘의 무덤 말고도 타지마할을 만든 샤자한의 공주의 무덤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무덤 주변 벽에 소원을 비는 실을 달아 놓은 것이 보였는데,(이것은 힌두교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것을 통하여 수피즘의 특징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안 쪽으로 더 들어가니 여러가지 사진들이 보였는데,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과 소냐 간디가 찍은 사진과 텔리 주 수상과 찍은 사진, 소냐 간디의 아버지인 라지브 간디와 관리하는 자의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보였다. 그곳에는 관리하는 자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가 같이 있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곳은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니잠무딘의 무덤으로 가보니 예배가 한창이었다. 따볼라를 치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고 수피들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수피들 중에는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젊은 아이들도 있었다. 그 아이들은 일정의 과정을 수료한 아이들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라고 한다. 이곳은 텔리 안에서 큰 무슬림 커뮤니티중 하나로서, 영적인 중요성 큰 지역이다.

VII 평가 및 제언

1. 일정

- (1) 한 지역에 삼사일동안 머물러서 지역 리서치 및 그 지역에 사는 종족 리서치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짧은 시간에 각 지역 및 종족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고 리서치가 수박 겉핥기로 끝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조사해야 할 지역이 많아서 지역당 삼사일밖에 못했지만 다음에는 정확한 조사 위해 한 지역에 1~2주간 머물면서 더 깊이 있는 리서치가 이루어 졌음 한다.
- (2) 이번 리서치 지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일정만을 짜고 들어갔다. 지역 이동에 대한 개략적인 일정 분류만 있어서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의 일정이 계속 바뀌는 등 시간이 낭비된 면이 많았다. 다음 리서치 시에는 1-2정도의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안에서 할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하고 들어갔으면 한다. 예를 들어 첫날은 그 지역을 향해 예배, 영적 전쟁 하며 연결점(contact point)를 정해오고 둘째날은 리서치 팀을 나누어 관공서와 교회 및 주변 지역을 리서치 하는 등으로 일정을 잡고 하루 세부 일정에 대해서도 목상시간과 10시 기도회 시간은 변동없이 확실히 정하고 인도의 특성에 따라 점심 시간 활동은 줄이는 등 일정을 정하고 들어갔으면 한다. 물론 현지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한 일정에 대해 정하고 들어가면 좋다. 이번 아웃리치 동안 일정에 대한 변동이 많고 하루 일정이 시간대별로 미뤄질 때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 초반에 10시 기도회가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리더십 회의를 통해 하루 일정의 중요한 순서를 변동없이 확실히 정했는데 인도의 여름 사정에 따라 아침 활동을 일찍 시작하고 가장 더운 시간 2시간 정도 휴식을 갖고 저녁에 다시 리서치를 하는 식으로 말이다. 7시 30분에 목상이 시작이 되었고 저녁은 전략회의가 늦게 끝난다 해도 10시가 되면 기도회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와 같이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3) 저녁에 하루를 정리, 평가하는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한다. 우선 리서치 팀별로 모여서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에 아니면 노트로 파일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우선 주었으면 한다. 이번에는 모든 팀이 모여서 한 팀의 리서치 상황을 정리하면서 들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다. 또한 시간이 계속 길어짐에 따라 10시 기도회에 지장이 가고 피곤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조별로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인도 특성상 레스토랑을 정하고 식사를 시킨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총무부에서 미리 알아

보고 주문을 하는 식의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필요하다. 확보한 저녁시간에 리서치 팀별로 파일노트를 작성하는 시간과 부별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두가 모인 전략회의 시간에는 각 팀별로 간단하게 발표하고 그야말로 전략을 짜는 시간으로 지켰으면 한다.

2. 리서치팀/부별 활동

- (1) 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 리더십에서 조를 편성하고 조장을 선출하여 미리 리서치 팀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조는 세명이 좋다. (리서치 팀 2명 + 미디어 팀) 한명은 인터뷰를 하고 한명은 물어 볼 것을 말해주고, 내용을 적어주며, 중보를 해준다. (리서치 팀) 그리고 미디어 팀은 미디어 작업과 주변 정리를 맡는다. 섬김이는 한 두번 같이 나가서 훈련생들의 리서치를 돕지만 그 이후에는 훈련생만으로 조를 구성하고 섬김이들도 한팀이 되어 리서치를 나가는 것이 좋다.
- (2) 기도부장은 리더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공유했으면 한다. 리더십은 그날 팀이 결정해야 할 중요사항을 기도부장에게 미리 말해주고 충분히 팀 전체가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합숙 훈련 때 다른 공동체와 부별로 연합하며 부서의 일을 배우는 시간이 있으면 한다. 부장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구별, 부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 (4) 리더십 회의에는 기장, 디렉터, 예배부장, 섬김이들(사람수와 무관)이 참석한다. 전체 전략회의는 기장이 인도하고, 리더십 전략회의의 리더는 디렉터가 인도한다. 전체 팀 앞에서는 기장이 리더로 서고 리더십이 모여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고 디렉팅을 할 때에는 디렉터가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끌어가도록 한다. 리더십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장은 전체의 조장과 부장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 (5) 섬김이의 역할 학기 중 부서를 세우고, 필드에서는 훈련생이 하도록 도와준다. 훈련생이 훈련 받는 데 집중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제 5장

종족 보고서

I. 개요

1. 보고서 목적

인도에서 약 80%에 육박하는 힌두교에 비해 20%정도 되는 무슬림들은 소수 그룹에 속하지만 세계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어 나간 무슬림까지 합쳐서 인구 통계로 보면 이 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힌두교에 비해 인도 무슬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인구 통계학상으로 보나 세계 선교 역사로 보나 인도 무슬림의 중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다. 인도 무슬림 중에 인도 북부에 주로 위치 하여 살고 있는 안사리 종족은 인도 무슬림에서 첫, 두번째 가는 주요 그룹으로써 가장 큰 숨겨진 종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카스트로도 그 위치가 분류가 되지만 이들은 실크 사리를 만들고 목제품, 청동, 석제품을 만드는 직종으로 인한 분류로 더 확실히 구분되어진다. 가장 큰 무슬림 종족중 하나인 안사리 종족에 대한 조사와 보고는 인도 전체 무슬림 접근에 있어 아주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필요와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냄으로써 그들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도되어지며 더 나아가 장기사역자가 나오기를 소망한다.

2. 보고서 구성

종족에 대한 조사표(부록 참고)를 기초로 한 각 항목에 인터뷰와 관찰조사 및 강의를 통한 조사내용을 적는다.

- 1) 일반개요
- 2) 경제
- 3) 생활/사회구조
- 4) 청소년 및 여성
- 5) 종교

3. 조사 개요

(1) 조사 지역

안사리 종족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 중 4지역을 조사

- 다르방가, 바라나시, 델리, 사하란푸르

(2) 인터뷰 대상

- 가메슈와르 썬카 다르방가 산스크리트 University'의 비아카 교수
- Maithili University의 Department of Mathematics 교수님들
- 산스크리트 대학 밑의 문법의 닥터 사시나하트자하
- 썬지브 썬하인(미틸란 대학, 25세, MCA 전공-MASTER IN COMPELETE APPLICATION)
- MD. NASEEM SEKH와 SHAMAMA SABRI ANSARI-다르방가
- Dr. AMARNATH JHA (MITHILA UNIVERSITY PHILISOPHY PROFESSOR)
- MOHD HASAN ANSARI 바라나시 National State 공장 사장
- Mubarak Ali, 25 / Md Khalid Korim, 25(잠비아 밀리아 이슬라미아 대학 MBA 전공)
- church of north India(CNI)-목사님(david Johnson)
- DR. M. NAIM ANSARI-사하란푸르에서 만난 의사
- 사하란푸르 CNI에서 만난 법관

(3) 조사 기간

- 7월 8일~13일 다르방가
- 7월 14일~17일 바라나시 리서치
- 7월 18일~20일 델리 리서치
- 7월 21일~24일 사하란푸르 리서치

(4) 조사 방법

2-3명이 한팀을 이루어 한명은 인터뷰를 하고 한명은 질문을 작성하고 메모, 중보기도를 하며 나머지 한명은 주위 상황 정리와 미디어를 찍는 방법으로 리서치가 이루어 졌다. 델리를 제외한 세 지역의 연결점이 없었기 때문에 안사리 종족이 사는 곳을 알기 위한 조사가 가장 먼저 이루어 졌고 연결통로를 통해 알게 된 안사리 종족의 상점이나 마을에서 종족 조사표를 근거로 한 인터뷰 위주로 리서치가 진행이 되었다.

다르방가와 사하란 푸르에서는 현지 사역자와의 만남을 통해 그 지역과 무슬림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나 안사리 종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직접 그 종족인 사람과의 인터뷰와 관찰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면에 있어 자료의 정확성을 완전히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에 대한 한계를 보고서 중간에 다루면서 가능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II. 종족보고

3. ¹일반개관

(1) 인도 무슬림의 역사

인도에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된 경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 무굴 제국 이전의 시대와 무굴 제국 시대로 나눈다. 모하메드 이전의 시대에도 인도에 아랍인들에 대한 언급이 남인도의 말라바르 해안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언급이 있으나 이들은 무슬림의 유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모하메드 이후 7세기 경에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남인도 해안가로 들어온 상인과 선원들이 토착민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 시작했다. 이때 아랍인들에게는 사무리(Samuri)로 알려졌고 포르투갈 인들에게는 자모린(Zamorin)으로 알려진 칼리쿠트 국왕의 개종은 종교적인 전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칼라쿠트의 군주들은 그들이 들어와서 전교하는 것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슬림들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다.

1) 무갈 제국 이전의 시대 : 가즈니 왕조-구르 왕조-노예 왕조-킬지 왕조-투굴룩 왕조-로디 왕조

무슬림들이 인도를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시작 한 것은 711년부터이다.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인 신드에 대한 무슬림들의 원정은 초기 무슬림의 시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원정은 안정되지 못하였으며 지속 된 것도 아니었다. 인도에서 처음으로 지속적인 지배를 실시한 왕조는 투루크(터어키) 노예 출신의 사북 데킨과 그의 아들 마흐무드에 의해서 건설된 지금의 카불 서남쪽에 위치한 가즈니 왕조이다. 그 영향은 편잡, 신드, 후라산을 비롯하여 이란 쪽으로는 지발까지 미쳤다. 마흐무드는 전후 17차례에 걸쳐 인도를 침입하여 수없이 많은 물품들을 약탈해 갔다. 그는 투르크 출신이며 페르시아의 사고를 가졌던 순니 무슬림이었다. 그는 페르시아어를 궁중언어로 택하였고, 그가 후원하였던 페르시아 시인들과 순니 신학자들은 그를 이슬람권의 위대한 용사로 불멸화시켰다.

가즈니 왕조는 중부 아프카니스탄 토착민들에 의해 건설된 구루 왕조의 무하마드로 이어 졌으며 12세기 후반 가즈니 왕조의 영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그들은 남쪽으로는 신드를 쳐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무하마드는 1192년 2차 타라인 전투에서 인도의 힌두 왕조에게 크게 승리를 거두고 그의 부하인 꾸툼 웃 딘 아히박에게 델리를 장악하도록 하였다. 그 후 무함마드가 1206년

¹ 일반개요의 인도 무슬림과 북인도 무슬림 카스트에 대한 내용은 김바울 선교사의 <북인도 무슬림의 정황과 선교전략>이라는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임

살해당하자 델리의 지배자였던 꾸뽀트 아히박이 그의 왕조를 계승해 나갔다. 그는 터어키 족의 노예 출신으로 포악하고 무자비한 군주였다. 그러나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후 결혼 동맹으로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켜나가기도 했다.

그는 동일한 노예출신의 신드 지방의 지사인 나시르 웃딘과 자신의 유능한 부하 일투트미스를 자신의 공주들과 결혼시켜 정권을 유지해 나갔다. 그는 티베트 국경 쪽으로 영토를 넓히기도 하였으나 낙마하여 죽자 그의 부하 일투트미스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 후 라지야 여왕, 40인의 노예, 발반 등이 왕위를 계승하다가 마지막 발반의 사망으로 소위 인도의 무슬림 노예 왕조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 무슬림 왕조는 킬지 왕조로 대체 되었으며 그 왕조의 6인의 군주들 치세에 남인도의 데칸고원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이 킬지 왕조는 반란과 내전으로 인해 14세기 전반 투굴룩 왕조로 대체 되었다. 이 투굴룩 왕조는 1398년 티무르의 인도 침입으로 소규모 국가들로의 분열화가 가속되어 델리에는 처음에는 사이드 왕조가 잠깐 있었으며 그 후 아프칸 족의 일파인 로디 왕조가 들어와 지금까지의 터키족의 지배를 끊어 버렸다. 로디 왕조는 3명의 왕이 있었으나 아프칸인들의 내란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하고 북인도 무슬림의 전성기인 무갈 왕조가 세워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무갈 제국 이전의 노예왕조와 그 외 다른 왕조들은 그 근원이 지금의 터어키와 중앙 아시아를 근거로 있었던 투르크족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가 있다.

2) 무갈 제국 시대

무갈 제국은 1526년 초대 왕 바부르가 델리 근교의 파니파트 전투에서 로디 왕조를 크게 이기고 그 다음해에는 무슬림과 라즈푸트 연합군을 격파함으로써 세워지게 되었다. 무갈 제국은 바부르 - 후마윤 - 아크발 - 제항기르 - 샤자한 - 아우랑제브 순으로 왕위를 계승해 나갔다. 무갈 왕조의 초대 왕인 바부르는 1483년에 태어났는데 부계로는 티무르의 5대 손이며, 모계로는 칭기스칸의 15대 손으로 그의 뒤를 이은 모든 왕들이 그의 자손들로 이어져 내려갔다. 그렇기에 북인도 무갈 왕조의 무슬림들의 근원은 멀리 몽골로부터 기원되었다. 이것은 인도의 무슬림들의 기원이 순수한 아랍 계통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중앙 아시아 계통의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기독교 선교적인 입장에서 복음의 접근을 조금 용이하게 만든다.

(2) 북인도 무슬림 카스트

인도 무슬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도 밖에서 들어온 무슬림들은 높은 카스트에 속하며 인도내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이들은 낮은 카스트에

속한다. 무슬림은 힌두 사람들에 비해 카스트 개념이 약하지만 결혼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할 때 확연히 구분하는 것을 볼 때 무슬림 안에 카스트 개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안사리 종족은 낮은 카스트 중의 가장 높은 카스트에 위치하는데 그런 면에서 높은 카스트에 속하기도 어렵고 한편 낮은 카스트에서는 높은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놓였다고도 할 수 있다.

북인도 무슬림에 카스트가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논의는 오래 동안 있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카스트라는 것이 힌두교의 독특한 특징이기에 무슬림에는 카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힌두와는 조금은 차이가 나며, 힌두처럼 엄격한 나누어짐은 없지만 동일하게 무슬림에도 카스트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북인도 무슬림들을 구별하는 데에는 6가지 조건에 따라서 그 동질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종교, 고향, 무슬림 공동체, 교육과 언어, 신분제, 동족의 이슬람 카스트는 직업별로 구분한다. 인도 전체의 3000개 이상의 카스트 중에 무슬림의 카스트는 160개(혹자는 400개라고도 한다) 인도에 사는 무슬림들이 모두가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기에 이들도 동일하게 무슬림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힌두나 기타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전통적인 이슬람은 카스트가 없지만 힌두교의 영향으로 그들에게도 카스트가 존재하게 되었다. 무슬림의 카스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1) 높은 카스트 : 아쉬라프(Ashraf)

이들은 인도 현지인들이 아니라 외국의 이슬람 국가에서 인도에 정복하러 들어온 무슬림들의 자손들이 높은 카스트가 되었는데 샤이드, 파탄, 샤이크, 무굴족을 합해서 아쉬라프라고 한다. 아쉬라프라는 말의 의미는 아랍어로 貴族?이라는 의미가 있다.

카스트 이름	surnames	종파	인구	많이 사는 지역
Sayyid/Syed	Jafari, Rizvi, Fatimi, Mir, Syed.	시아파	약 360만	U.P, West Bengal
Sheikh	Siddiqui, Farooqi, Usmami.	순니파	약 950만	인도 전역에서 발견
Pathan	Khan	순니파	약 640만	파키스탄과 인도 국경지대
Mughal	Mirwa, Baig, Mir	순니파	약 110만	델리,

2) 낮은 카스트 : 아즈라프 자트(Ajlaf Jat)

이들은 모두 무슬림이 아닌 인도 현지 인들로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이들 가운데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다음과 같다.

① 높은 신분의 카스트에서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

이들은 힌두의 높은 카스트에 있던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하여된 사람들이다.

카스트 이름	surnames	
--------	----------	--

Rajput/Lalkhani	Khan	당시 인도의 지방 귀족들
Malik	Malik	Syed 와 Mughal의 결혼으로 생긴 카스트

② 전통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써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이다.

카스트 이름	surnames	직업
Ansari/Momin/Julaha	Ansari	베를 짜는 사람들
Darzi	Idrisi	Tailors
Karadi		가구 만드는 사람
Qassab/kasai/Khatih/Qureshi.	Qureshi, Sheikh.	고기 파는 사람
Chik		양고기 파는 사람
Raie/Raine/Subzifurosh/Kunjra.	Nadaf	과일, 야채 장사
Besati		제지 공급업자
Mansuri/Dunia/Bahna/Pinjara.	Mansuri	담요 만드는 사람
Churihar/Sisgar.	Sisgar	팔찌 만드는 사람
Dafali/Daflange.	Dafali	북 만드는 사람
Hajjam/Nai/Napit	Sulaimani	이발사
Dhobi	Hawari	세탁업자
Chidimar/Mirshikar	Siddiqui, Chiriwar	사냥꾼

③ 깨끗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무슬림 Untouchable

이들은 자신의 고유 이름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불가촉 천민이 무슬림으로 개종 사람들로써 가장 천대받는 계급이다. 무슬림들은 이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카스트 이름	직업
Qalanders	원숭이나 곰을 데리고 다니며 채주부려 구걸하는 사람
Faqir/Fakir/Shah	움직이지 않고 한군데 있으면서 구걸하는 사람
Sheikjee	농부, 가축을 먹이는 사람
Ghosi	일용 잡부
Lal Begi/Bhangi	청소부, 변을 치우는 사람

- (3) 이들 외에도 직업별로 분류된 카스트는 더 많이 있다. 그러나 무슬림들의 카스트는 힌두들과 조금 달라서 그렇게 엄격한 결혼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남자의 경우 더 높은 계급의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여자도 더 낮은 카스트의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과 무슬림 가장 낮은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결혼 관계를 갖는다.

4. 일반개요

(1) 종족명

‘돕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안사리 종족은 베틀을 짜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줄라하’라고도 불린다. 안사리는 이들의 성이기도 하며 캐스트 명칭이기도 하다

(2) 지리적 위치

안사리 종족은 인도 북부에 있는 UP주(인도 27개주중의 하나로 인도북부에 위치)에 주로 위치하여 있다. 카슈미르부터 시작하여 사하람푸르 델리, 바라나시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반달모양을 이루며 분포하여 있다(아래 지도위 그림 참고)



(3) 직종

안사리 종족의 대부분은 크게 사리를 만드는 안사리와 목제품을 만드는 안사리로 나눌 수 있는데 주로 실크 사리(silk sari)를 만드는 안사리는 바라나시에 위치하여 살며 목제품(wood)을 만드는 안사리는 사하람 푸르에 주로 살고 있다. 한편 아그라에 사는 안사리들은 석제품(stone)을 만든다 그리고 델리 근방의 안사리들은 금속제품(metal)을 만든다

<²안사리 분포도>

*sari

baranasi mau buapal madray kanchipuram

* carpet & Rugs

hadoi Beuaras Mirzapur Kashmir Shahjahanpur

* wood carve

saharanpur

* brass

Darbhanbhaga bhagalpur

* brass

Moradabad

(4) 인구

인도 전체 10여억 인구중에 약 20%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은 UP주 2억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다. 안사리 종족은 무슬림 중에 첫, 두번째를 차지하는 주요그룹(major group)이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큰 종족(the largest unreached people)이다. 이번 조사팀이 간 4지역에서는 상가, 공장 등 위주로 모여사는 안사리 종족의 마을을 찾았는데 각 마을마다 2000명에서 4,5만명에 이르기까지 규모가 다르다.

(5) 주요종교와 언어

99% 이상이 무슬림이며 무슬림 커뮤니티를 이루어 살고 있다. 이들의 주요 언어는 우르드어이다. 우르드어는 무슬림의 언어이다. 인터뷰한 사람의 대부분은(교육받은 계층) 힌디와 우르드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

² 사하람 푸르 CNI 교회에서 목사님 소개로 만난 안사리 법관의 설명

(6) 정책

인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요의상과 주요 제품을 만들고 있는 안사리 종족의 산업에 지원하기도 한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바라나시의 실크 사리에 대한 정부 보조는 확실하나 목제품을 만드는 안사리 종족에 대한 보조는 확실하지 않다. 사하람 푸르에서 만난 의사(DR. M. NAIM ANSARI)는 지원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

(7) 이주상황

안사리 종족명에서 볼 수 있듯이 대대로 이들은 사리를 만들거나 목제품, 금속제품등을 만들어 왔다. 주로 한 마을에서 대대로 그 직종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그 가족 및 친족이 그 마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바라나시에서 인터뷰한 공장 주인(MOHD HASAN ANSARI)은 200년 이상 그 마을에서 실크 사리를 만들어 왔고 가족 친지가 50명이 넘게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상점(이름 : National State)을 경영하고 있는 바르나시의 한 가족은 아들 셋 모두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 계속 사리를 파는 상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주현상이 눈에 띌 정도가 아니라 주로 그 마을에 가족이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었고 인터뷰를 통해 물러본 이주상황은 무슬림이라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크게 없다고 대답을 하였다.³ 대부분의 안사리들은 한 마을 안에서 거주지, 일터, 친지들, 친구들 그리고 인생의 전부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을은 강한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5. 경제상황

(1) 직업

일반개요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의 대부분은 실크사리나 목제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베틀을 돌리고 사리를 만들거나 나무를 조각하는 것을 배우는 많은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와 같이 그 일을 이어가고 있었다. 대부분이 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의사와 같은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소수도 있다. 아이들 교육을 시킬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대학과정까지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들의 자녀가 꼭 안사리 종족의 과업을 잇기만을 바라지는 않는다.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점을 아들이 이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바라나시, National state 운영자와의 인터뷰) 의사나 교수 등과 같이 지위 있는 직업을 갖기를 바란다. 주로 교육을 시킬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기술을 가르쳐서 노동력으로 쓰는 경

³ KACWM(한미세계선교센터)의 ‘안사리 숨겨진 사람들’ 책자 10p

우가 많고 반면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는 대학까지 교육을 시켜서 지위있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2) 소득

바라나시에서 실크 사리를 주로 만들고 있는 안사리 종족은 사리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분담하여 일을 맡고 있었다. 실타래를 삶고 깨끗이 씻어서 염색하고 길게 펴서 말리고 베틀에 돌리는 작업, 사리에 넣을 디자인을 그리고 디자인 그림의 모양대로 틀을 짜고 구멍을 뚫어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 그 표본을 가지고 베틀에 돌리며 손으로 또는 기계로 베틀을 돌리며 사리 천을 만들어내는 작업, 그 사리를 질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로 파는 일, 그 기본 천으로 몸의 사이즈에 따라 사리 브라우스를 만들고 치마 천 끝을 다듬어서 파는 일까지 다양하다.(그림 참고 - 바라나시 안타이 타운에서)



각 일에 따라 수입이 다른데 만들어진 천을 가지고 상점에서 또는 공장에서 직접 인도의 주요 도시 뭄바이나 캘커타, 델리 등으로 또는 유럽과 미국 등지로 교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하다. 한편, 중간상과 공장을 소유한 이들과 다르게 안사리 종족의 대부분을 이루는 직조공 근로자로서 베틀을 돌리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등의 직접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저소득층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층의 한달 수입 1000-1500루피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들의 소득 4,500루피, 2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상점의 주인의 한달 수입 1

lack 루피(lack = 10만 루피)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조사하지 못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수입을 얻는 부유층까지 수입이 다양하다. 도시에서는 카스트라기보다는 경제구조에 의해 나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다.



(3) 교역방법

인터뷰한 상점 두 군데의 교역방법을 살펴보면 두 상점 모두 200명 정도의 공장 근로자를 두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사리는 주로 인도 내의 주요 도시로 팔린다. 도시로는 뭄바이, 캘커타, 델리, 벵갈로 등이다. Haji Mohd Farooque & Co에서 Mohd Hasan Ansari에 의하면 그 공장의 제품들은 유럽과 미국, 호주 등 큰 도시에 수출된다고 한다. 제품 출고 현황 내역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만 루피 이상의 고가로 제품이 출하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장인 Hasan은 유럽 등지를 오가며 시장을 개척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직 외국시장에 다량의 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소수 또는 개인과 연결이 되어 제품을 보내주는 것 같았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같은 규모의 상점 주인과 인터뷰 하면서 인도내의 주요 도시로 출품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시장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4) 빈부차/카스트/종교차이로 인한 문제

위의 항목 수입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계층마다 소득 차이 있다. 그러나 부유층과 극빈층간의 빈부차이 문제로 인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질문에서 대부분의 인터뷰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부유층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강한 무슬림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안사리 종족은 자신의 직업과 위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다르방가에서 인터뷰 한 미틸라 대학의 철학교수의 말에 의하면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소득 격차 뿐 아니라 무슬림의 카스트로 인해 나뉘어진 계층 차이에 대해서도 말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우리는 하나이며 모두가 형제라는 대답으로 힌두인들과 관계, 무슬림 카스트속의 다른 카스트와의 관계를 일축하여 표현했다. 그러나 실제적으

로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다. 모스크에서마저 캐스트가 다르면 함께 예배하기를 꺼려하거나 자신의 캐스트의 지도자가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6. 생활과 사회구조

(1) ⁴식습관과 의복

인도 북부의 식습관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그 가정에 초대 받아 갔을 때에는 살모사와 시오나 등의 비스킷, 콜라를 음료로 대접하였고 다르방가의 한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밥, 커리, 치즈, 피클(망고로 만든 한국의 김치와 같은 음식) 등이었고 그 지역 특산물인 마카나와 망고를 먹을 수 있었다. 여성들은 외출할 때 모든 무슬림 여성이 그러듯 검정 베일(차도르, 버카)을 몸 전체에 두르고 다녔고 남성들은 주로 흰색 편자비와 흰색 토피 모자를 머리에 쓰고 다닌다.

(2) 가족/친족

안사리 종족을 비롯한 무슬림에게 있어 결혼 상대자에 대한 결정권은 주로 부모님에게 있다. 결혼의 의미가 무슬림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세우는데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젊은 대학생과의 인터뷰에서 몇몇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감을 고를 것이며 다른 종교라도 상관없다며 개방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막상 결혼 문제에 직접 부딪치게 되면 카스트와 종교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부모님의 결정권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텔리의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야 대학에서 MBA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Mubarak Ali, 25 / Md Khalid Korim, 25)와의 인터뷰에서 둘 다 돈의 여유가 있다면 아내를 4명이상 둘 수 있다는 대답을 했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아내들은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툼의 위험은 적으며 무슬림으로 아내를 한 명 이상 두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평균남자 나이 25세, 여자 나이 20세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들은 2,3명을 낳는다고 한다. 한편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대 초반에 결혼하는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은 10명에서 20명 까지 낳는다.



(3) 권위 통치

인터뷰를 한 대부분의 무슬림 가정의 가장들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권위와 결정

⁴ 생활에 대한 내용 중 식습관, 의복에 대한 내용은 4장의 지역 보고서 언급한 부분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을 것임, 지역 보고서 참고 바람

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들은 결혼 직후에는 동일한 힘을 갖지 못하다가 아이들이 자라고 나이가 들게 되면 가정을 다스려갈 힘을 갖게 되고 결정권을 갖게 된다. 가장중심의 사회라고 볼 수 있으며 가장은 직계가족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이런 특권 뒤에는 가난과 싸워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⁵ 대부분의 안사리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수입은 있지만 많은 경우 7-10명의 식구가 가구가 거의 없는 한 칸 짜리 방에서 생활을 한다. 능력이 되면 불어나는 식구들을 위해 방 하나를 늘릴 수도 있고 극 소수는 방세가 싼 시골 안사리 마을로 이사 가기도 한다. 이들은 딸의 지참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갖고 있어야 한다.

(4) 의사소통

주로 무슬림 여성들은 가사일을 돌본다. 가난한 계층은 공장에서 베를 돌리고 옷을 만드는 등의 일을 갖기도 하고 교육받은 계층은 아내가 전문적인 일을 갖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무슬림 가정은 여성이 집에서 가사일을 하기를 바라고 실제로도 그렇다. 아내들은 주로 집을 청소하고 요리를 하며 세탁 및 설거지 등의 가사일을 하며 여유 있는 시간에는 다른 여성들과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한다. 바라나시에서의 상점 주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9시에 상점을 문닫고 위층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는 아내와 2시간씩 꼭 대화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가 다른 직업을 갖길 원하지 않으며 다른 남자가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검은 베일을 쓰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 가족은 부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해 보였지만 중상층 이상의 부유층에 속해있는 그들과 많은 가난한 사람과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5) 사회관습

인터뷰에 응한 대부분의 안사리 종족 사람들은 보통 무슬림 처럼 하루에 다섯 번의 기도를 지킨다고 대답을 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꼭 메카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대답했다. 라마단 금식기도와 라마단이 끝난후 열리는 축제 ID가 있었다.

(6) 결혼

결혼시 배우자에 대한 결정권은 부모님이 가지며 카스트 및 종교 등 여러가지 조

⁵ KACWM(한미세계선교센터)의 ‘안사리 숨겨진 사람들’ 책자 12p

건을 보며 고르는 과정을 갖게 된다. 결혼시 여성들은 지참금의 명목으로 소파, TV, 침대, 냉장고 등과 같은 가전제품, 신랑 가족의 옷, 금패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 무슬림들은 결혼시 많은 액수의 지참금을 요구하는 힌두 전통을 받아들였다. 결혼의 의미가 무슬림 커뮤니티를 유지하며 세우는데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혼률은 2% 미만이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사회적인 이목이 좋지 않다. 코란에서는 남편이 원하면 이혼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여성들은 참고 지내온다. 물론 재혼은 가능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혼한 여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게 때문이라도 더더욱 여성들은 불평등한 대우와 차별, 학대속에서도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7. 청소년 및 여성

(1) 교육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마다 진학률에 대한 다른 대답을 했다. 평균적으로 통계해볼 때 30-40%가 초,중 교육을 받으며 약 20%가 고등교육을 받게 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적은 숫자에 이른다. 위의 항목에서 언급했듯이 가난한 사람들의 많은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



리나 목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공장이나 상점에 속하여 일을 한다. 여성과 남성의 교육에 대한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냐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을 그렇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낮다. 주로 영어가 가능한 사람들과의 인터뷰로 인해 드러난 한계중에 그들의 대부분이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그들의 정보를 얻기가 부족했는데 관찰 조사와 현지 사역자를 통해 각 영역에 대해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교육받은 계층의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개방되고 다른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여자 아이 하나를 가진 한 인터뷰자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고 그 아이를 대학까지 잘 교육시켜서 높은 지위의 직업을 갖기 바란다고 대답을 했다. 한편, 전반적으로 커뮤니티를 바라볼 때 여성은 남성보다 기회라는 측면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2)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비

인터뷰에 응한 철학교수, 의사, 상점 사장 가족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컸다.

모두 대학까지 자녀를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아내와 자녀 모두가 대학을 나와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교수는 한달 6000루피의 소득 중에 20% 이상을 딸 아이 교육에 쓰고 있다고 했다.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보다 더 비싸다고 한다. 한편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한달 소득이 1000루피에서 상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4000루피로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위치에서 많은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텔리대학이나 사하람 푸르에 위치한 대학의 한 세션 교육비는 1000루피 정도이며 보통 대부분을 부모님의 지원으로 해결을 한다고 한다.

(3) 남/여 선호 사상

대부분의 응답자의 대답은 여자 아이든, 남자아이든 상관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현지 사역자에 의하면 실제적으로는 남자아이를 갖는 것은 신 앞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남자아이를 낳기 위해 여자아이를 7이나 낳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빈부 계층과 교육을 받고 그렇지 못한 계층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많은 수의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해 주었다.

(4) 성교육

교육기관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소년의 성에 대한 정보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많다. 무슬림 가정에서 여성들의 성 문제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이다. 가족내의 남자 형제나 심지어 아버지로부터의 겁탈 문제를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자들의 모임에서 주로 나누어지는 대화의 대부분은 남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 결혼을 한 후에도 아이를 갖는 부분에 대한 통제력이나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해서 낳고 그로인한 여성병도 문제중의 하나라고 한다. 건전한 오락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어둡고 그늘진 집의 환경, 성교육의 부재 등이 이와 같은 성문제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5) 여성의 지위

여성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이가 든 후 결정권을 갖기 전까지는 가정에서 동일한 대우나 결정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결혼 하기 전까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가사일로 결혼 후 남편의 가족을 위한 가사일로, 남편 가족과의 관계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산다. 교육 받은 계층에서 어느 정도 개방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지만 결혼 한 후에는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당한다고 볼 수 있다.

8. 종교

(1) 세계관

겐시스 강에 몸을 씻는 행위로 죄가 없어진다는 힌두교 사람들의 관념에 대해서 대부분이 긍정하지 않았다. 현재 삶에서의 선행 정도에 따라 사후에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고 믿고 있었다. 텔리에서 만난 대학생들에게 마음의 어려움이 생기고 고민과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냐는 질문에 하루에 다섯번씩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 모스크에서 어떤 기도를 하냐는 질문에 기도양식이 있다고 했고 어려움이 생길 때 종교 지도자인 이맘(Imam)을 찾아가서 얘기한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 시간을 지킨다고 대답은 하였지만 실제 대부분 직조품과 목제품을 만드는데 여념이 없는 그들이 매번 시간을 지켜 기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메카에 간다는 것은 수입이 적은 그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2) 종교지도자(IMAM)

모스크의 지도자는 'Imam'(이후 이맘이라고 표기)이라고 불린다. 이맘은 하루에 기도를 다섯 번 하는 것을 지키고 코란을 읽고 이해하며 언행이 바르고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코스를 이수한 사람을 이른다. 이맘은 다른 직업을 병행하여 갖기도 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곤 한다. 한편 여성 지도자도 있는데 10가정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맘과 같이 다섯번 기도를 하고 코란을 이해하며 언행이 바른 사람이 되는데 모스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사진) 바라나시에서 인터뷰한 무슬림 여성의 어머니가 바로 이 지도자였는데 그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갖는다고 한다.⁶이맘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모하메드가 죽자 마자, 메디나에서는 모하메드의 사촌이자 사위(모하메드의 딸 파티마와 결혼)인 알리 브 아비 탈리브('Ali b Abi Talib)가 예언자의 뒤를 잇기 위해 가장 자질이 있다고 믿는 소수 집단이 나타났다. 이 소수집단은 "시아트 알리"(Shi'at 'Ali)로 알려졌고 "시아"(Shi'a)로 다시



단순화되었다. 시아파는 모하 메드가 사실은 후계자를 지명했으며 그 사람은 바로 알리라고 믿었다. 그들은 후계자를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기를 좋아하여 "이맘"(imam)이라고 하였다. 한편 알리와 그의 동료들은 선거제를 통하여 예언자의 후

⁶http://www.kcm.co.kr/bethany/a_code/islam.html#The%20Beginnings%20of%20Shi'a%20Islam에서 참고

계자를 선출하는 행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이것이 무슬림 다수파로부터 시아파를 분리시키게 된 바로 그러한 반란이었다. 정당한 질서에 대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4명의 칼리프들 (알 쿨라파 알 라시둔(al-khulafa' al-rashidun) 또는 "정통 칼리프"로 알려짐) 은 코란에 담긴 계시의 내용대로 이슬람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모든 포괄적인 규율의 정통 보존자로 여겨졌다. 수니파 이슬람으로 알려진 것은 이러한 정통파였다. 시아파의 교리에 따르면 이맘들(알리와 그의 직계 후손들) 은 종교적인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으며, 가장 중요한 논점은 이슬람의 교리와 종교적 주장의 해석에 관계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코란의 가르침과 이슬람의 성스러운 율법 ("샤리아", Shari'a)이 인간을 뛰어넘는 곳에서 나온 것이며 따라서 인간 이성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슬람 계시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맘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권위자가 필요하다고 시아파들은 인식했다. 알리는 마침내 4대 칼리프로 계승했지만, 시아파는 그가 첫번째 진짜 칼리프라고 믿고 있으며 11명의 다른 칼리프들이 뒤를 이었다. 시아파의 눈에, 알리의 후계자로서의 독특한 자질은, 모하메드의 유언을 통해 표현된 대로 신의 명령에 의해 임명되었다고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을 갖는 것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알리는 또한 신적인 영감을 갖고 있으며 오류와 죄가 무결하고, 따라서 그의 지식에서나 예언자의 뒤를 이은 가르치는 권위자로서나 그는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다. 즉, 정통 수니파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코란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며 더이상의 계시는 없다고 믿는다. 시아파 이슬람은 정당한 이맘은 코란의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는 신적인 영감과 알라의 권위를 함께 갖는다고 믿는다. 이처럼 시아파 이슬람은 2개의 주요 분파 중 보다 급진적이고, 여러 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차기 "이맘"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특별한 주의로 무슬림들을 재통합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불행히도 이것은 "지하드"(Jihad, 이교도에 대한 성전)로 자주 표출되었다.

(3) 기독교 상황

안사리 종족 가운데 기독교인을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다 하더라도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다른 종교적인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을 찾아보기는 더더욱 힘들다. 다르방가에서는 (지역보고서 참고) 세 개의 가정교회와 일반교회 2개로 5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모두 현지인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하람푸르에는 5개의 교회가 있었다. 주로 현지 교회의 사역은 치유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배시간에 간증시간을 통해 체험한 것을 나누는데 치유의 경험을 통해 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신자 중에도 계속 초자연적인 체험을 해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지 교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크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개종한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우

선 그 커뮤니티에서 신앙을 지키며 기독교 문화를 따르며 살기가 쉽지 않다. 또한 무슬림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의 왜곡된 관점으로 인해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크다.

9. 평가 및 제언

(1) 일정

- 1) 한 지역에 삼사일동안 머물러서 지역 리서치 및 그 지역에 사는 종족 리서치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짧은 시간에 각 지역 및 종족의 참모습을 발견하기 어렵고 리서치가 수박 겉핥기로 끝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조사해야 할 지역이 많아서 지역당 삼사일밖에 못했지만 다음에는 정확한 조사 위한 지역에 1~2주간 머물면서 더 깊이 있는 리서치가 이루어 졌음 한다.
- 2) 이번 리서치 지역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일정만을 짜고 들어갔다. 지역 이동에 대한 개략적인 일정 분류만 있어서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의 일정이 계속 바뀌는 등 시간이 낭비된 면이 많았다. 다음 리서치 시에는 1-2정도의 지역을 정하고 그 지역 안에서 할 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하고 들어갔으면 한다. 예를 들어 첫날은 그 지역을 향해 예배, 영적 전쟁하며 연결점(contact point)를 정해오고 둘째날은 리서치 팀을 나누어 관공서와 교회 및 주변 지역을 리서치 하는 등으로 일정을 잡고 하루 세부 일정에 대해서도 목상시간과 10시 기도회 시간은 변동없이 확실히 정하고 인도의 특성에 따라 점심시간 활동은 줄이는 등 일정을 정하고 들어갔으면 한다. 물론 현지 사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한 일정에 대해 정하고 들어가면 좋다. 이번 아웃리치 동안 일정에 대한 변동이 많고 하루 일정이 시간대별로 미뤄질 때가 많았는데 그로 인해 초반에 10시 기도회가 축소되거나 생략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리더십 회의를 통해 하루 일정의 중요한 순서를 변동없이 확실히 정했는데 인도의 여름 사정에 따라 아침 활동을 일찍 시작하고 가장 더운 시간 2시간 정도 휴식을 갖고 저녁에 다시 리서치를 하는 식으로 말이다. 7시 30분에 목상이 시작이 되었고 저녁은 전략회의가 늦게 끝난다 해도 10시가 되면 기도회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와 같이 진행되는 것이 좋다고 본다.
- 3) 저녁에 하루를 정리, 평가하는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한다. 우선 리서치 팀별로 모여서 노트북이 있으면 노트북에 아니면 노트로 파일노트를 작성하는 시간을 우선 주었으면 한다. 이번에는 모든 팀이 모여서 한 팀의 리서치 상황을 정리하면서 들었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다. 또한 시간이 계속 길어짐에 따라 10시 기도회에 지장이 가고 피곤해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조별로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

데 인도 특성상 레스토랑을 정하고 식사를 시킨후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총무부에서 미리 알아보고 주문을 하는 식의 효율적인 시간관리가 필요하다. 확보한 저녁시간에 리서치 팀별로 파일노트를 작성하는 시간과 부별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모두가 모인 전략회의 시간에는 각 팀별로 간단하게 발표하고 그야말로 전략을 짜는 시간으로 지켰으면 한다.

(2) 리서치팀/부별 활동

- 1) 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학기 중에 리더십에서 조를 편성하고 조장을 선출하여 미리 리서치 팀으로서의 활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조는 세명이 좋다. (리서치 팀 2명 + 미디어 팀) 한명은 인터뷰를 하고 한명은 물어 볼 것을 말해주고, 내용을 적어주며, 중보를 해준다. (리서치 팀) 그리고 미디어 팀은 미디어 작업과 주변 정리를 맡는다. 섬김이는 한 두번 같이 나가서 훈련생들의 리서치를 돕지만 그 이후에는 훈련생만으로 조를 구성하고 섬김이들도 한팀이 되어 리서치를 나가는 것이 좋다.
- 2) 기도부장은 리더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도 제목 같은 것들을 공유했으면 한다. 리더십은 그날 팀이 결정해야 할 중요사항을 기도부장에게 미리 말해주고 충분히 팀 전체가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합숙 훈련 때 다른 공동체와 부별로 연합하며 부서의 일을 배우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 부장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구별, 부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 4) 리더쉽 회의 에는 기장, 디렉터, 예배부장, 섬김이들(사람수와 무관)이 참석한 다. 전체 전략회의는 기장이 인도하고, 리더쉽 전략회의의 리더는 디렉터가 인도한다. 전체 팀 앞에서는 기장이 리더로 서고 리더십이 모여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고 디렉팅을 할 때에는 디렉터가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끌어가도록 한다. 리더십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장은 전체의 조장과 부장에게 내용을 전달한다.
- 5) 섬김이의 역할 학기 중 부서를 세우고, 필드에서는 훈련생이 하도록 도와준다. 훈련생이 훈련 받는 데 집중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제 6장

부별 보고서

I. 예배부 보고서

목 차

1. 기도부 보고서 작성 목적과 필요성

2. 기도부의 주요 역할

3. 2기 기도부 조직

4. 기도부 활동 내역

5. 인도를 위한 기도제목

6. 평가

7. 제언

1. 기도부 보고서 작성 목적과 필요성

- 1) 전문 필드 리서치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임을 알린다.
- 2) 기도일지를 상세히 기록하여 사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킨다.
- 3) 필드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알린다.
- 4) 실제로 필드로 나가기 전 필요한 영적인 부담감과 기도부의 사무적인 Skill을 보고한다.
- 5) 영적 전쟁의 체계적인 개념 확립과 방법론적인 측면을 보고한다.
- 6) 실제 리서치를 통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기도 인도 형태와 기도의 실습을 보고함으로써 기도 훈련과정의 모델을 제시한다.
- 7) 필드에서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기도를 이끌어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고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게 한다.
- 8) 전문 필드 리서치 사역에서 전체일정의 운영과 팀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비교 보고한다.
- 9) 그 땅과 거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기도로 증거하여 리서치한 종족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관리, 활성화 시키도록 한다

2. 기도부의 주요 역할

- 1) IFR의 정체성과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IFR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한다.
- 2)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IFR의 유익을 위한 묵상 거리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3) 기도부가 먼저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 4)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냉수 한 그릇”의 역할을 기도로 감당한다.
- 5)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음으로써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IFR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쌓아간다.
- 6) IFR은 하나님의 군대임을 확고하게 인식하며 매 순간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해 체계적인 훈련을 쌓고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무장시킨다.

중보자: 방패 기도,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 뿐만이 아닌 진정한 위로자로 다가감

3. IFR 2기 기도부 조직

(1) 예배부는 부장과 헬퍼 2명으로 구성된다.

1) 부장:박청해(훈련생)

- 아침 묵상 시간 인도
- 저녁 10시 기도회 인도
- 이동 중이나, 주요 관문도시 그때 그때의 상황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 중보 기도나 릴레이 기도 조직/인도
- 공동체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중보 기도한다.
- 공동체의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2) Helper: 손혁준(섬김이)

- 찬양 인도
- 부장과 함께 예배를 인도한다.
- 예배에 대해 조언하며 예배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공동체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중보 기도한다.
- 영적인 중재자로,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4. 예배부 활동 내역

(1) 예배 인도

1) 매일 10시 기도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며, 또한 우리가 필드에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팀원들에게 끊임없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우고, 예배부가 가장 먼저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해 깨어있어 중보 기도한다.

10시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같이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묵상한다.

또한 공동체에 말씀을 선포하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선포하며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2) 아침 묵상 인도

묵상할 본문 말씀을 선정하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한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공동체 안에 함께 선포한다.

아침을 묵상으로 시작하는 일은 몹시 중요하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기 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는 일에서부터 공동체의 방향성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와 의탁의 관계를 이뤄가는데 가장 밑받침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2) 중보기도

1) 땅 밟기 기도

영적으로나 중요한 지점들을 분별해 내고 그 곳들 가운데 중보기도를 선포하고, 함께 기도한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문들을 둘러보면서 땅 밟기와 중보기도를 하고 그 땅 가운데 예배를 인도한다. 그 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땅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 땅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한다.

2)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

공동체 안의 관계성의 문제나 그 밖의 문제들에 항상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공동체의 상황들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분별해 낸다.

공동체의 가장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연합, 즉 예배이기 때문에,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예배는 너무도 중요하다. 예배가 바로 선다면 공동체의 문제들이 그렇듯 많이 부각되지 않을 것이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들을 잘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시

기장, 디렉터와 함께 리더쉽 회의에 참석해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함께 바라보며 기도한다. 또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장과 디렉터를 섬기며,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

(4) 구체적인 활동 내역

이동하는 첫 날부터 끝날 까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나눔이 있었다. 섬김이가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해주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것이 있다면, 예배 부장으로서, 인간적으로 연륜과 경험이 너무도 부족하고 상황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개인적으로 담대함이 부족했다. 그건 아마도 예배인도자가 예배 부장 개인의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했고 분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역효과라는 생각이 든다.

1) 10일 합숙기간

● 6월 27일 금요일

참 포도나무의 비유-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수고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역되어짐”을 경험하는 IFR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함이 있다. 이제 본격적인 합숙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 6월 28일 토요일

하나됨에 대한 묵상 - 에베소서 4장 1절~24절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은 한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서 한 땅을 바라보고 모인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Not I But Christ”라는 자기의 영역이라고 고집했던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기 부인이다.

● 6월 29일 일요일

모두들 너무 피곤에 골아 떨어져서 아침 묵상을 나누지 못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라는 특송을 IFR을 중심으로 연습해서 함께 불렀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땅이 주를 시인할 때까지..... 그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리라. 참 은혜

가 충만한 예배였다. 최미경 전도사님께서 Good Shepher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다는 사실이 너무 삶에 위로로 다가왔다.

● 6월 30일 월요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시편 139편 1절~ 16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 하시고 아셨나 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 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 하셨나 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무기력할 때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의지하고 위로를 얻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준다.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기를

● 7월 1일 화요일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욥기 12장 7절~25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으니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리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열왕의 맨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무척이나 말씀의 나눔이 풍성한 날이었다. 모든 것이, 심지어는 고통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전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머리 숙이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을 지라도 욥과 같이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알지?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으로 한 일만 쳐 주는 거…….” 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를 사역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목적으로, 사랑과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7월 2일 수요일

병 낫기를 위한 간구-(야고보서 5장 13절~20절)

너희 중에 고난 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 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모두들 피곤해서 아침 목상에 참석하지 못했고 특별히 선연 디렉터님께서 많이 아프셨다.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선연 자매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일 중심이었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렸고, 그래서 우리는 늦게나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어려움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데, 자기의 모습과 틀 속에서 나를 온전히 깨트리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우리가 고난가운데서도 즐거움 가운데서도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시간이었다.

2) 필드

● 2016년 6월 8일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행기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아침 QT를 하지 못했다. 비행기를 타고 너무 정신이 없고 분주한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지만 어쨌든 무사히 홍콩 공항에 도착하고, 공항에서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홍콩 공항에서 8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들 가운데 세우신 두 리더쉽, 기장님과 디렉터가 아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 누워있었고 그런 연유로 다른 팀원들은 정신을 잃고 너무 흐트러져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가 다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고, 기다리는 도중에 8시쯤 조용히 예배를 드렸다. 되지 못하고

제각기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있었다. 공항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용히 해야 하는 주위의 분위기 때문에 너무 놀리는 감이 있었지만, 정말 예배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다. 이 홍콩과 세계와 인도가 하나님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고,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 묵상했다. 공항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함에 대한 회개함이 있었다. 아픈 두 리더십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발 인도 텔리에는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도착하길…….

● 2003년 7월 8일 화요일

<묵상> 요한 복음 1장 35절~51절

- 텔리의 첫 번째 숙소: My hotel
-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calling 하심에 대한 묵상. 정말 하나님이 기쁨 부어주신 나눔이 있었다.
- 나다나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정말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 것 같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중심을 휘어 잡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
- 선미자매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나눴는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음성인 것 같다.

● 2003년 7월 9일 수요일

<아침 묵상> 요한 복음 2장 1절~ 11절 말씀

- 텔리에서 다르방가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말씀 묵상 겸 예배를 함께 가졌다. 말씀 묵상을 하기로 했던 시간에 이뤄진 것은 아니고, 이동하는 동안 너무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다 잠이 드는 통에, 하기로 했던 릴레이 기도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하지만 말씀 묵상은 정말 은혜와 아멘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혼인 잔치에 대한 묵상.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 변화는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지실 때 일어나는 것이다.
- 물에서 포도주로 이름이 바뀌면 맛과 향기와 색깔이 다 바뀌듯 우리가 그리스도인(크리스찬)으로 거듭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

야 한다는 감동이 있었다.

-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천국의 비밀과 그 기쁨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순종임을 묵상했다.
- 하인들이 물을 떠 오되 그 동이까지 채움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순종하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한 순종함을 이룰 것을 함께 다짐했다.

● 2003년 7월 10일 목요일

<아침묵상> 요한복음:2장 12절~25절

- 너무 늦게 일어나서, 묵상이 너무 늦어졌다.
-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묵상
- 선연 자매 :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내셨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것들이 제사 지내는 것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임을 느낀다. 나의 관심도 바로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수님은 형식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바라고 원하신다.
- 청해 자매 :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 예수님께서서는 홀로 참 외로운 싸움을 싸우셨던 것 같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면, 예수님은 정말 외로울 것이다. 우리가 그 분의 마음을 알고, 그 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민감함이 필요할 것 같다.

<저녁 예배>

- 선연 자매와 지성형제가 John선교사님을 만나고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온 관계로 예배가 많이 늦어졌고, 자는 사람들을 깨워서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었다. 많이 졸고 피곤해 해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부담이 있었다.
- 혁준 형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오늘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그 질문을 던지고, 우리 자신에게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먼저 너무 감사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보고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같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시

간을 가졌다. 그러는 와중에 선미 자매가 끝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같이 마음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조성하였듯이 이 백성을 조성하였고, 너를 잘 알고 사랑하듯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다고 나눠주었다.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묵상했다.

-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는 신실하고, 책임지는 자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

- 나눈 찬양 :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I have a maker)

- 나눈 말씀: 이사야 41장 8절 ~11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7월 11일 금요일 날씨:맑음

<묵상> 요한복음:3장 1절 ~21절

- 기장님은 아파서 누워 버렸음
-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진리와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지성 형제: 보이심-빛에 대한 묵상을 나눴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비취주실 것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신뢰함으로 그 빛을 쫓아요
- 선미 자매: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듭남이지구나, 일에 대해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돌아옴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구나.
- 청해 자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 광야에서 뚝 뱀이 들리듯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 은혜의 비밀인 것 같다.

- 선연 자매: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묵상했다. 빛은 어두움이 충만한 곳에서 환영 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런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심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다. 어두움은 빛과 함께 하지 못하고 빛이 비취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다. 우리가 옴으로써 다르방가의 어두움이 물러가길 원한다.
- 혁준 형제: 광야에서 뱀이 들리듯 인자가 들려야 하리.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인자는 이미 들렸습니다. 우리는 인자가 이미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선포해야 합니다.
- 훈: 니고데모가 물었던 것 처럼 우리도 모르면 예수님께 여쭙봐야 합니다.
- 선교사님: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여러분들 중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예배>

- 전략회의가 너무 늦어져 다들 피곤했다. 예배 준비를 5분만에 마치고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 준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위기였다. 혁준 형제와 나 (예배부)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 우리가 기도하고 나눈 마음은 감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려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좀더 자중하고 하나되며 서로 세워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었다.
- 나눈 찬양 :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 기도 제목: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세워주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가 서로 세워주며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해 달라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 해 주시고 아파 있는 기장님 가운데 치료의 능력 부어달라고.
- 나눈 말씀: 로마서 8장 27.28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 2003년 7월 12일 토요일

<아침 묵상>

- 아침 8시 30분에 John과 남병진 선교사님과의 약속이 있어서 QT를 일찍 마쳐야했다. 또한 호텔 청소하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침대 시트를 갈고 아침 묵상이 좀 정신이 없고 시끄러운 가운데 이루어 졌다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좋은 나눔이었다.
- 나눔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36절
- 지성형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을 것을 가르치셨는데 왜 현 교회는 평신도가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 선연자매: 신부를 맞는 것은 신부이지만, 신부 곁에서 함께 하는 신랑의 친구가 기쁜 것 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 청해자매: 우리 가운데,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 오전에 미트라 university의 philosophy교수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 John이 소개시켜 준 분의 guide로 ANSARI마을을 돌아보았다. 훈이 형제가 배가 아파서 그 마을에 사는 크리스천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주 인상적이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훈이 형제에게 계속 "Take a rest!"라고 말하면서 쉬기를 권했다. 콜라도 대접 받았다. 우리는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길 바라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를 함께 찬양했다.
- 함께한 찬양
 - GOD is so good= (힌디어로 이슈 아차 해)
 -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 함께한 기도
 - 형제님을 위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 자매님을 위해: 팔이 아픈데, 팔의 회복을 위해

<저녁 예배>

- 기장님이 아파서 드러누웠다.

-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7절)
-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예배가 되었다.

● 2003년 7월 13일 주일

<아침묵상> 누가복음 15장 7절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묵상을 하였다.
-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한 마리 양으로 인해서 애타듯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 인도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저녁예배>

- 이사야 41장 8절~16절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 2003년 7월 14일 월요일

<아침 묵상> 갈라디아서 5장 13절~26절

-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묵상
- 파르나에서 바라나시로 이동하는 가운데 묵상이 이루어졌다.
-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묵상을 하려 했으나, 선교사님과의 교제 때문에 묵상은 뒤로 미뤘다.
- 선연 자매가 현대어 판으로 이 말씀을 나눴는데, 더 현실감 있고 피부에 와 닿는 표현이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 우리가 우리의 의로 완전하게 서려고 하고, 율법적인 사고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것이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바라고 계신다는 마음이 든다.

<저녁예배>

- 바라나시... (산티 게스트 하우스 숙소에서...)
- 바라나시의 갠지스 강이 보이는 옥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 예배인도를 해야 할 부장이 많이 힘들었고, 영적으로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헬퍼인 혁준 형제가 대신해서 인도했다.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3,24)
- 바라나시에 도착해서 그 땅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을 기도했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것을 기도했다.
- 포도나무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들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사역의 열매들은 저절로 열리는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03년 7월 15일 화요일

<아침 묵상> 이사야 41장 8절~16절

-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
-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필드에 내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 할 수 있었다.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온전히 의뢰할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
-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우리의 주 되심을 묵상하는 일일 것이다.

● 2003년 7월 16일 수요일

<아침 묵상> 느헤미야 1장

-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머무르면서 유다의 성벽들이 황폐해지고,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찢고 주저앉아 통곡하며, 자신과 이스라엘

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땅을 위해 중보해야 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이 땅의 성벽이 황폐하고, 무너졌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하는 일일 것이다. 그 중보는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이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계속 확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겠다. 하지만, 아침에 많이 시끄럽고 주문한 음식이 나오자 조금 산만한 가운데 나눔이 이뤄졌다.

<저녁 예배>

- 무슬림 지역으로 4명이 리서치를 갔기 때문에, 조금 일찍 7시쯤 예배를 드렸다.
- 하나님께서 예배가운데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다. 오늘은 갠지스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시꺼먼 시체들의 흔적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들이 죽음의 강에 자신의 영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길이 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길 기도하며 함께 중보했다.
- 함께 나눈 기도 제목
 - 인도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중보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게 해 달라고
 - 하나님의 영으로 부음받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게 해 달라고
 - 오늘 무슬림 가정으로 가는 리서치를 위해서.

● 2003년 7월 17일 목요일

<강가강에서 예배>

- 5시 30분 갠지스 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바라나시에서의 마지막 날)
 - 그 곳에 더러운 물에, 술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떠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 물에 몸을 씻으며 자신의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 하나님은 여호와시며, 그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했다. 이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이며, 지금 이 땅을 미혹케 하는 것들, 이 땅의 백성들을 묶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아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부어주셨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다.
- 갠지스는 정말 하나님의 강이며, 하나님의 것인데, 그 것을 미혹케 하

는 것들을 대적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갠지스의 물이 아니며, 어린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 뿐임을 선포했다.

<아침 묵상> 스가랴 3장

-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 여호수아를 향해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고, 내 종순(예수님)을 허락하셔서, 단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을 사할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시는 분이시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이 오염되고,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가운데, 새 순을 허락하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한 관을 씌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 예배자로서의 새 정체성을 함께 묵상했다.
- 하나님 불에 바짝 그을려 버린 나무 조각 같은 저희에게 당신의 아들을 새 순으로, 그 것도 중의 신분으로 허락하신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며, 머리에 정한 관을 씌우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예배>

- 이동하는 가운데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함께 기도제목을 나누고 인도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얹혀있고, 사람들이 거룩하다 믿는 바라나시를 위해, 갠지스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다들 하나님 주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 선미 자매의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마음 속으로 중보했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 2003년 7월 18일 금요일

- 아침 7시 델리에 도착했다. 7시에 델리에 도착했는데 비가 와서 택시를 잡아타고 호텔을 잡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지체 했다. 로드 매니저는 빵을 사러 가고, 나머지는 샤워를 하고, 쉬었다. 너무 정신이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감이 있었고, 아침 묵상은 거의 넘어갔다.
- 저녁 늦게나 교수님과 합류하게 될 줄 알았는데, 교수님께서 좋은 기차를 타고 재권 형제와 생각보다 일찍 도착 하셨다. 다들 감격의 재회를 했다.
- 12시쯤 김바울 선교사님께서 오셨다. 김바울 선교사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시간에 맞춰 모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모이는 시간이 늦어진다는 점, 특히 자매들의 샤워시간이 너무 늦다는 점에서 기

장님이 지적이 있었다. 어쨌든 바로 전략회의를 하고, 우리는 조를 나눠 식사를 나눠 타고 바로 리서치에 나섰다.

<저녁 예배>

- 다같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이었다.
-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아 두는 문제에 대해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또,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께서서는 몸이 좋지 않으셔서,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재권 형제는 같이 참석했다.
- 재권 형제의 기도제목을 같이 나누고 중보 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멀리 인도 땅에 떨어져 있으면서 가족 특히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과, 외롭고 마음에 힘든 문제들, 그리고 2년 후에 한동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그 문제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03년 7월 19일 토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32장 13절~32절

- 압복강에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돌아가면서, 처와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모습을 묵상했다. 처음에는 겁쟁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축복을 가로챈던 속이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과 만나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야곱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은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과정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해주고 하나님 안에서의 다른 정체성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아웃리치가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다. 또한 재권 형제의 나눔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재권 형제가 인도에 가면서 품고 있던 생각이 아브람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을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인도 땅 가운데 왔는데 인도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감을 얻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을 나눠주었다.

<저녁시간>

- 저녁 7시에 선교사님댁에 초대를 받았다. 5시까지 숙소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각각 조를 나뉘서 리서치를 나갔는데, 선연/진홍/청해 조는 리샤를 잘못타서 너무 늦어졌고, 선연/청해자매가 쫓아서 6시 50분이 되어서야 출발 할 수 있었다.

7시 30분이 좀 넘은 시간에 댁에 도착했다. 맛있는 밥과 국, 부침과 잡채와 닭갈비 등 맛있는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다. 맛있게 먹고 난 뒤, 젓가락으로 crossed/uncrossed 게임을 같이 했다.

그런 다음에 한동대의 사진을 보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께 선교사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겪을 수 밖에 없는 심적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그들이 선교사가 아니고 어릴 적에 겪을 수 밖에 없는 언어적 문화적 충격은 모른 척 하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높은 신앙심들이 MK들에게는 과연 엄청난 부담감과 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같이 선교사님의 맏딸인 혜진 자매가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은혜롭고 같이 주님을 올려드림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선교사님(김바울 선교사님)께서 기도제목을 나눠주시고 우리는 함께 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시는 대학생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 자녀들을 사람의 정이 많이 그리웠던지 금새 친해졌고, 자고 가기를 바라기 까지 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정말 눈물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다.

● 2003년 7월 20일 주일

<아침 묵상> 에스겔 37장 1절~14절

- 마른 뼈에 대한 환상
-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 37장 6절 말씀>
- 스가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과 동일했다. 불에 그슬려 타다 남은 나무 조각같이 생명 없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그 은혜 앞에 다 같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인도 땅 가운데도 실현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또한 인도를 위해 중보 하는 시간을 가지는 도중에 이

인도 땅을 정작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주일 예배>

- 텔리 임마누엘 한인 교회
- 담임 목사님: 김광선 목사님
- 다들 피곤해서 많이 졸았다.
- 예배가 끝나고 차이나이즈/재패니즈 레스토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과도 교제 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 지성형제의 몸이 안 좋기 시작했다.

<땅 밟기 기도>

- 텔리 땅을 위한 땅 밟기와 기도
-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인디아 게이트에 가서 그 땅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처음에 선언 디렉터가 부패한 인도의 정치 체계, 힌두와 이슬람의 분쟁에 따른 문제, 지도층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것을 제안했다.
- 실제로 그 곳이 상당히 시끄럽고, 군악대까지 대동한 축제 분위기여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 혁준 형제가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 함께 기도한 제목
 - 인도 땅, 텔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
 - 인도의 부패한 지도층들에게 이 땅의 거민들을 향한 마음이 부어지도록
 - 힌두와 이슬람의 정치적인 분쟁이 사라지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 지도층들이 상황의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인도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 함께 한 찬양
 - 문들아 머리 들어라.
 - 이 땅위에 오신
 - 나는 여호와
- 인디아 게이트에서 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중보하며 호텔로 돌아왔다.

● 2003년 7월 21일 월요일

<아침 묵상> 다니엘 1장

-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 뜻을 정하는 일의 어려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자, 왕의 뜻을 거역하기로 작정했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힘들고 막막했을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대신으로 세우시고 많은 축복을 해 주심을 묵상했다.
- 마음과 환경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청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왕으로 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그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
- 또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물리적인 방법과 다르고, 풀과 채소 만으로도 다니엘과 세 소년의 얼굴을 살찌게 밝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도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

<저녁 예배>

- 혁준 형제가 예배를 인도했다.
- 기도제목들
 -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게 해 달라고 기도
 - 그 뜻 가운데, 모든 환경과 사람의 마음과 여건들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한 신뢰함으로 하게 해 달라고

● 2003년 7월 22일 화요일

- <아침 묵상> 출애굽기 12장 21절~36절
- 저녁예배

● 2003년 7월 23일 수요일

- 아침 묵상 : 이사야 53장
- 저녁 예배

● 2003년 7월 24일 목요일

- 아침 묵상:스가랴 14장
- 저녁 예배

● 2003년 7월 25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편 100편

-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자들인지에 대한 깨달음
- 시편 100편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일 뿐 만 아니라, 삶의 모습이 되게 해 달라고, 인도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자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 그의 양 이라는 이 고백이 인도 거민들 가운데, 그들의 고백이 되길
- 우리를 그 분의 사역 가운데로 부르시고 동참케 하시며 천국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시는 그 분의 뜻 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기도

<저녁 예배>

- 아침에 나눴던 말씀을 저녁 예배 때 함께 나누는 것이,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고 유익하다고 혁준 형제가 조언해 주었다.
- 저녁 예배 때도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다.
-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찌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알 수 있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애찬식>

-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우리 안에 그 분이 주시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기장님이 우리 안에 드러난 너무도 많은 관계의 문제들을 재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리더십회의에서 함께 애찬식을 계획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었다.
- 선연 자매와 선미자매가 포도주와 카스테라를 준비했다.
- 한 사람씩 모두 앞에 나와서 축복의 말, 조언의 말, 그리고 관계 가운데서 어렵고 서운했던 부분들이나 어려웠던 부분들을 나누고 서로의 입에 포도주를 적신 카스테라를 넣어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다.
- 원래는 애찬식을 따로 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안의 관계들에 대해 나누려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애찬식으로만도 너무도 많이 부어주시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다.
- 애찬식을 통해서 우리 안의 관계의 문제들이 많이 보여졌고, 서로 용

서하고 용납하며 받아들이는 성령 안의 귀중한 나눔이 있었다.

- 거의 새벽 4시 넘게 까지 애찬식을 하고, 사리와 편자비를 입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 2003년 7월 26일 토요일

<아침 묵상> 이사야 61장

- 비행기로 이동하는 도중이어서, 함께 모여서 묵상을 나눌 수 없었다.
- 특히 우리들 가운데 아픈 지체 (지성 형제)가 있어서,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힘든 상황이었다.
- 현지 시각으로 2시 30분쯤 홍콩에 도착해서 홍콩 제일 교회를 찾아갔을 때는 오후 늦은 시간이었다.
- 곧 CFR미션 팀(사강, 최규빈, 박신웅, 조연희)과 합류하고, 간단하게 그 교회에서 주신 라면으로 식사를 해결한 뒤 함께 10시 기도회를 가졌다.

<10시 기도회>

- 나눈 말씀: 밀알에 대한 묵상
-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 예배부(박신웅, 박청해, 손혁준)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 먼저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고, 나머지 멤버들을 방에서 다음날 목사님께서 부탁하신 특송을 준비하고 연습했다.
- 먼저 이제까지의 일정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 옆 지체들을 향해, 축복해 주는 시간들을 가졌다.
- 밀알이 되게 해달라고, 한 알의 밀알로 이 땅 가운데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썩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철저히 순종하고 썩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 2003년 7월 27일 주일

<아침 묵상> 나눈 말씀: 시편 133편

-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

림같고,

- 풍성하고, 아름다운 말씀의 나눔이 있었고, 서로 안의 연합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 하는 시간들이었다.
-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연합 한 곳에서, 약속하신 복이 영생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시 확인하고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나눔이 있었다.
-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은 하나님의 선별된 자에게 허락되는 ‘거룩’이라는 이름인데, 우리의 연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함으로 만이 온전한 연합을 이뤄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묵상했다.
- 머리의 기름이, 정말 옷깃까지...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그 테두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기름으로 덮여져야 함을 나누었다.
-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도록 나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두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예배>

- 9시에 있는 1부 예배와 11시에 있는 2부 예배에 모두 참석을 했다.
- “모든 열방 주 볼 때 까지”라는 곡을 특송으로 함께 불렀다.
- 선연 자매가 공동체와 FR의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 짧게 나눈 다음이 홍콩이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며, 홍콩 제일 교회의 사람들이 선교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함께 축원했다.
-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곡을 축복 송으로 부르며, 교인들과 서로 축복해 주는 시간들을 가졌다.

<오후 시간>

- 홍콩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홍콩 시내의 야경을 보고 사진을 찍었다. 오는 길에, 우리가 정말 노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 높은 High place에서 홍콩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홍콩 땅의 사역자님들과, 중국 선교와 또한 인도와 서남아시아와 여러 곳을 복음화 하는데 귀하게 홍콩이 쓰임 받게 해 달라고 이 땅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다.

● 2003년 7월 28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편 92편 말씀

-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와 정직하심

을 나타내리보다 여호와와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 우리 안에 분명히 소망들이 있었다.
-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삶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들어 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 사람들의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마음을 주셨다.
- 아침 묵상 후에는 IFR팀은 숙소에 남아서 3기 디렉터를 뽑고자 했지만, 아픈 형제가 있어서 잘 진행되지 못했고, CFR미션 팀은 기도 중보자들에게 줄 기념품을 사고 IFR에게 맥도널드 버거와 귀한 과일들을 대접했다. 함께 교제한 뒤 공항으로 택시로 이동했다.

(5) IFR이 만난 선교사님들

- 김바울 선교사님(텔리)
- 남병진 선교사님(다르방가)
- JOHN 선교사님(다르방가)
- 이경훈 선교사님(파트나)
- 마리아지 선교사님(파트나)
- 한바울 선교사님(파트나)
- RALPH BENJAMIN 선교사님(사하란푸르)

5. 인도를 위한 기도 제목들

- 1) 인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 2) 그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도록
- 3) 카스트 제도가 없어지고, 모두들 형제와 자매로 설 수 있도록
- 4) 모든 문제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사고가 성령의 바람으로 새로워지길
- 5) 정치적으로 부패한 지도층들이 주님의 정결함을 덧입도록
- 6) 엄청난 빈부의 격차의 문제
- 7) 전기와 상하수도과 같은 시설의 문제
- 8) 많은 수의 불가촉 천민(untouchable people)들과 빈민들

6. 평가

(1) 예배

1) 자세나 태도에 대한 문제 또한 아쉬움으로 다가 올 수 밖에 없었다. 이동이 많았기 때문에 아침 묵상시간이나, 기도회 시간이 많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적인 문제들도 많았지만,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만큼은 거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2) 장소의 문제

예배 장소가 주로 호텔이다 보니, 옆 호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들 안에 많은 나눔이 있었다.

하지만 주로 중요하게 생각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아쉬움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마음이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른 문제들 때문에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는 문제는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기에 예배부로서 착착 함으로 다가왔다.

3) 이동 중

● 기도 제목을 놓친 부분

지리적으로 중요한 관문에서 깨어 기도 하지 못하고 많이 지나쳤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 거의 피곤이 누적되면서, 이동하는 동안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방향으로 많은 일들이 이뤄졌다.

● 역이나 지리적인 거점

또한 역에 내려서 이동을 준비하기 전에 항상 기도로 준비하지 못하고 항상 로드 매니저를 중심으로 바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그 땅에서 발을 디디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항상 뒷전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 좋았던 점

하지만 이동하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몸이 피곤한 가운데 온전하게 이뤄가지는 못했지만 함께 릴레이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온전하게 함께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가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과 후회로 남는다.

● 아쉬움

또 한 가지는 이동하는 동안에 드렸던 예배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나 찬양하는 모습들을 신기해 했고 예배 드리는 동안 계속 기타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의미인지를 물어왔다.

● 평가

몇 번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예배는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골방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공동체의 예배에만 의존하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예배를 하는 동안에는 바깥으로 난 문을 닫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우리가 예배가운데로 나아가고 정말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분 앞에만 우리의 심정과 정성을 다 드려야만 하나님은 예배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100%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다.

(2) 중보기도

1) 그 땅을 위한 중보

-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땅을 위해 중보하기 위해서 그 땅에 간 것이다. 그 땅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에게 절하며, 거짓된 신들과 미혹된 것들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며,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복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서 간 것이었다. 우리는 그 역할을 잊지 않아야 했다. 항상 깨어있고, 항상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 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땅을 위해 중보하기 보다는 우리들 가운데 문제들에 허덕이며 관계성을 더 바라보았던 것이 사실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니, 우리 안의 관계가 문제로 남아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에 너무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만 같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것을 구하면, 다른 것들은 책임 져 주실 것을 이미 약속 하셨는데 그 약속들을 너무 작게 여긴 것 같다는 뒤늦은 후회가 든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 1: 3~4>

우리가 정말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슬퍼하며 중보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 주셨으며, 많은 것들로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에 너무도 감사하다.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그 터들이 황폐해 졌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금식했는데, 우리는 그 무너진 성터를 눈앞에 두고도 더 많이 슬퍼하고, 금식하며 가슴을 찢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사랑하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만 그 땅을 위해 중보 할 수 있고, 그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진정으로 슬퍼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인도를 바꾸시길 원하신다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또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 기도로 열방을 경영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너무 감사했다.

2)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

-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다.

원래 만나기로 계획되어 있었던 분은 텔리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바울 선교사님 한 분 뿐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기대치도 않은 곳에서 그 땅을 위해 일하시는 귀중한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다르방가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갈 수 있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 드렸는데, 식사하는 가운데 남병진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었다.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열악하다고 생각했던 호텔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일하고 계셨다. 침대와 옷장하나가 전부인 인도 현지인 가정의 작은 옥탑방이 선교사님께서 사시는 곳이었다. 그런 곳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하며 그 땅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 비자문제와 가정을 꾸리는 문제들, 또한 그 땅 가운데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해 달라고 중보했다.

남병진 선교사님과 함께 사시는 NGO소속의 JOHN도 27살의 젊은 나이부터, 작은 방에서 선교사님과 같이 인도인들과 같이 살며 하나님을 전하고 계셨다. 현지인들과 아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또한 아주 유창한 힌디어를 하는 것을 보면서 선교라는 것은 저렇게 삶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

파트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귀한 선교사님들과 뜻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그곳의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말씀들 가운데, 잃었던 가족을 길에서 만나면 울며 끌어안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내 것이기 때문이듯, 이 인도인들이 내 가족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는 나눔이 모두에게 정말 와 닿았다.

텔리에서, 김바울 선교사님을 통해 자녀를 한동대 가운데 보내기를 소망하시는 한 선교사님과 또한 교제할 수 있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현지에서 겪는 문화적인 언어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다.

3) 땅 밟기

-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나, 정말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고, 기도가 필요한 곳에서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
- 하지만 그 땅을 밟고 그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그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만으로도 그 땅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그 이유 때문에 힘들어도 방학동안 많은 훈련 팀들을 받는 다는 선교사님들의 나눔은 우리 안에 땅 밟기에 대한 확신을 충분히 심어주었던 것 같다.
-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들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7. 제언

- 정말 많이 부족한 예배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팀 안의 화합의 문제들이나 공동체의 나약함들이 너무도 쉽게 드러나고, 그것들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에 너무도 넘어지기가 쉬운 것 같다.
-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라.
- 먼저 예배 인도자는 먼저 깨어 기도하고,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 예배 인도자가 영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방향성을 제 때 제시해 주지 못하면 공동체가 좌충우돌하게 된다.
- 예배 인도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 담대함과 확신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확신은 인도자 스스로가 그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릴 때 가능한 것이다.
- 예배 인도자 또한 리더십 회의에 참석해서 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서 합

께 논하게 된다. 그럴 때, 겸손한 마음으로 디렉터와 기장을 위해 중보하고, 디렉터와 기장은 예배 인도자를 신뢰하며 기도해야 할 방향과 공동체 안에 닥친 어려움이나 상황들을 충분히 나눠주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면 나눠준다.

- 공동체의 리더나, 그리고 그 밖에 예배 인도자보다 예배에 대한 경험이나 상황적인 분별력들이 예배 인도자보다 나은 자가 분명히 존재 할 것이다. 그들은 상황에 알맞게 예배 인도자에게 적절한 조언과 훈계를 하며, 또한 예배 인도자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조언한다.
- 하지만, 그 조언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야 하며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잘못된 훈계는 예배 인도자가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때때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 예배 인도자가 모든 상황을 분별하여 기도해야 할 때를 말해주고 선포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이동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적 여건들 속에서 그러하지 못할 수가 있다. 팀원 모두가 예배 인도자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 땅 밟기를 할 때에는 지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반드시 밟아야 할 중요한 지점들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예배 인도자가 예배에 대해 미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좋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준비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
- 예배 인도 전에는 반드시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II. 문서자료부 보고서

목 차

1. 문서자료부 보고서의 목적

2. 문서자료부 활동의 목적

3. 조직

4. 문서자료부 활동 내역

5. 평가

6. 제언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6

1. 문서자료부 보고서의 목적

제2기 INDIA FIELD RESEARCH 문서자료부의 보고서는 문서자료부의 활동을 정리하고 문서화하여 그것을 평가, 반성하고 이를 통해 보는 사람들에게 문서 사역에 대한 VISION을 심어주며 차기 문서자료부의 활동이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진다.

2. 문서자료부 활동의 목적

인도 현지에서의 research 활동과 보고서 작성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 한다는 INDIA FIELD RESEARCH 의 목적에 따라 보고서 작성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VISION을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 현지에서의 조사 내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서로 문서화함으로써 선교에 있어서의 ‘리서치(research)’ 개념을 알린다.
- 현지에서의 관찰, 조사, interview 등의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지역 연구 자료를 통해 그 지역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다.
- 우리가 제작한 동원자료와 보고서를 통해 인도 현지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에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3. 조직

(1) 구성

부 장 : 최 훈

헬 퍼 : 구선미

(2) 역할 분담

1) 부장

최 훈 : 일정과 전략회의를 정리하며, 문서를 정리하며, 자료를 수집한다.

2) 자료관리 : 최 훈

I.F.R. 활동을 통해 나온 모든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하고 관리한다.

4. 문서자료부 활동 내역

(1) 10주 훈련기간 (4/6~6/15), hand book 작업기간 (6/26~28)

부장이 세워지고, 리서치 실습기간과 10일 합숙 기간 동안 일정 정리와 전략회의 정리 및 보고서 작성 실습을 하였고, 핸드북을 작성했다.

(2) Research 기간 (7월 7일~ 7월 28일)

- 지역자료(지도, 책, 녹음 tape, 그림, 의상등)를 수집하였다.

(3) 보고서 합숙기간 (7월 29일~ 8월 3일)

- 문서자료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일정을 정리하였다.

5. 평가

(1) 10주 훈련 기간

1) 성과

- 실습 리서치 기간을 통해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인식했다.

2) 한계

- 1명의 부원 수로 인한 업무 분담의 실패.
- 맡은 일에 대한 전문성 부족.

(2) 10일 합숙훈련 기간

1) 성과

- 핸드북 작성
- 일정 정리에 대한 실습.
- 기도 편지 작성.

2) 한계

- 핸드북 작업이 늦어졌다.
- 핸드북 작업에서 목차가 엇갈렸다.
- 핸드북 작업에 집중하느라 문서자료부 내에서 기도예 신경 쓰지 못하였다.
- 전 기수에 만들어 놓 핸드북을 짜집기 했다.
- IFR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도편지 작성시 어려움이 있었다.

(3) 리서치 기간

1) 성과

- 무슬림 여성에 관한 무슬림의 입장에서 쓴 책을 구입했고, 다르방가 여행 자료나 현지 선생님들이 조사해 오신 자료를 구했다.

2) 한계

- 자료를 보관할 가방이 없었기에 자료가 분산, 보관되어 자료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각 조에서 리서치 기간 동안 그날의 조사내용을 그날에 파일노트에 옮기는 '24시간의 원칙'이 잘 안 이루어졌다.
- 파일 노트와 필드 노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제언

(1) 10일 합숙기간

- 핸드북에 대한 막연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text에 충실하여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 2기 핸드북에 있는 중보기도 일정의 의도는 좋았으나 잘 실행 되지 못했다. 기도 제목을 자주 볼 수 있도록 핸드북을 작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IFR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에 대한 충분한 나눔이 필요하다.

(2) 리서치기간

- IFR이외에 합류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필드노트는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한 사람 당 2개 정도를 준비)

- IFR의 핸드북을 현지 선생님께 보급하지 못했다.
- 현지 리서치에서 성과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리서치 팀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하고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 리서치 부분도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며, 영적전쟁의 연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3. 회 계 부

목 차

1. 회계부 보고서작성 목적
2. 회계부 활동의 목적
3. 조직
4. 회계부 활동 내역
5. 회계보고
6. 평가 및 제언
7. 기도제목

1. 회계부 보고서 작성 목적

우리의 활동을 정리하고 반성함으로써 2기 활동 기간 동안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묵상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2기 회계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우리의 체험을 전해주고자 한다.

2. 회계부 활동의 목적

(1)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팀 운영 지원

학기 중의 10주간의 훈련, 10일간의 합숙 훈련, 출국 전후의 기간, 인도현지 리서치 기간, 보고서 작성기간에 리더진과 함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팀 운영 지원을 한다..

(2) 팀 내의 물질적인 상황에 대한 기도

팀내의 물질적인 필요를 우선적으로 알고 하나님께 그 물질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한다.

3. 조직

- 회계부장 : 김지성

4. 회계부 활동 내역

(1) 10주 훈련기간

- 1) 훈련 5주째 전기수 회계부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다.
- 2) 간식비를 모아서 간식준비위원회에 간식비를 지급했다.
- 3) 부산 리서치 기간동안 제정적인 부분을 담당했다.
- 4) 여권 준비 (여권 길에 name tag을 붙여서 관리 하기에 편리 하도록 한다.)
 - 자매
 - 여권 발급하는 곳(시청 또는 동사무소)에서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 해서 제출한다

준비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매, 주민 등록증, 주민 등록등본, 도장, 수수료(복수 여권 50,000원 단수 여권 15,000원)

- 여행사에서 발급할 경우 : 주민등록증과 주민 등록 등본, 여권용 사진3매 수수료 (5년 여권-50,000원, 1년 여권-30,000원)

- 형제

- 병무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할 서류 :

- 총장님의 국외 여행 허가서(교무과에 비치되어 있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무과에 제출하면 1~2일 걸린다.)
- 2명 이상의 보증인을 세운다.(재산세 납부 증명서와 인감 증명서가 필요하다.)

- 4기의 경우 여권 제출이 늦어져 나중 비자 발급까지 늦어져 상당히 곤욕을 치렀음

5) 비행기표 예약

한 한달 전 출국 할 예상 명단을 작성해서 여행사에 보내 예약을 해준다. 후에 확정 명단이 나오면 남는 것은 취소하면 된다. 예약시 출국 할 사람들의 영문 이름을 여행사에 보내야한다. 영문이름이 틀릴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여권과 같은 영문이름으로 비행기를 예약한다.

(2) 합숙 훈련 기간 (6월 28일 ~ 7월 7일)

1) 준비물표와 조직도를 작성하여 자료부에게 넘겨줌 (핸드북에 실기 위해서)

- 개인 물품 : 여권, 국외 여행 허가서(형제),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구, 파일, 필드 노트, 신분증(학생증), 간단한 옷가지등
- 단체 물품
 - 총무부: 집에 붙일 name tag(약 6개쯤 여유있게 준비한다.), 공항에서 우리 집임을 표시할 리본 끈, 의약품, 현지인에게 나누어줄 선물(한동 엽서, 뽕지등), 선교사님, 자제분들 및 현지 동역자(통역)을 위한 선물등, 선교사님 선물은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한국물품이나 컴퓨터 용품이면 좋을 듯 합니다.
 - 찬양부: 기타줄, 피크, 기타 멜빵, 기타 가방, 찬양집, 피치 파이프등
 - 워십부: 데크, 워십용 테이프, 건전지등
 - 미디어부: 캠코더, 캠코더 테이프, 충전기, 충전지, 건전지
 - 자료부: 개인 필드 노트, 조별,부별 파일 노트, 카메라, 카메라 필름등
 - 기도부: 기도편지

2) 비자 발급: 인도 대사관에 비자표를 작성해서 보내면 쉽게 받을수 있다.

- 발급기간은 하루에서 이틀정도 걸린다.

- 비용 : 6만5천원
- 3) 인도에서 사용할 가방 커버(비옷)를 미리 준비할 것. (가격 5000원정도)
- 4) 의약품 구입 : 리서치 기간 동안 쓰일 약품을 조별로 미리 준비한다.
- 의약품 내역 : 물파스 , 파스, 소화제, 지사제, 해열제, 진통제, 반창고, 소독약, 탈지면, 상처연고, 피부약, 두통약, 항생제등
 - 리서치 기간동안 많이 사용한 약품: 해열제, 지사제, 종합 감기약, 물파스

(3) 리서치 기간 (7월 7일 ~ 7월 28일)

1) 공항에서

- 비행기 티켓과 비자를 받고 출국 수속(출국 신고서와형제인 경우는 병무계에 국외 여행 허가서를 제출함)을 밟음.
- 공항이용권 구입(1인당 10,000원)
- 환전을 함

2) 리서치 기간중에

- 전체 회계와 총무를 한명이 담당하게 되었다.
- 물은 늘 사서 먹었고 10-20루피 사이의 가격
- 아침의 경우는 빵과 바나나등을 사서 잼을 발라 먹었기에 아침에는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 점심, 저녁은 리서치를 나간 경우 리서치 조끼리 해결을 하고 아닌 경우에는 함께 식당에 가서 먹었습니다.
- 이동하기 며칠 전쯤에 기차표를 미리 사두었다.
- 리서치 기간 중 생일을 맞은 지체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안에서 파티를 열어 주도록 하였다.
- 조별로 리서치 나갈 때 마다 적당한 리서치비를 지급했다.(한국에서 봉투를 많이 준비해 가서 리서치 비를 지급할 때마다 사용하였다.현금할 때도...)
- 매일 사용한 제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리하였다.
- 숙박은 호텔에서 주로 묵었고 하루에 한명에 100-150루피 정도
(더블룸 : 200 - 250 루피 정도의 에어컨 없는 방)
- 한국에서 재정을 모두 달러로 환전해서 나갔다.
- 선교사님이 부탁한 물품 및 각종 공동집을 관리했다.
- 현지에서 필요한 혹은 떨어진 물품을 조사하여 구입했다.
- 선교사님께 미리 준비한 감사의 선물을 드렸다.
- 리서치를 위해서 사리를 구입하고 천을 구입해서 인도전통의상만들.
- 조별로 흠어지기 전에 현지인에게 나누어줄 볼펜과 작은 선물등을 배분했다.

3) 돌아오는 공항에서

- 남은 돈은 다시 환전함

(4) 보고서 합숙 기간 (7월 29일 ~ 8월 일)

- 1) 일인당 5만원씩의 생활비 지급
- 2) 생일 맞은 지체 축하
- 3) 재정을 위해서 헤나를 구입해 왔는데 판로를 알아보고 있음.

5. 회계보고

(1) 목적

- 2기 때의 회계 역할과 재정 사용을 정리하여 3기 회계의 회계 활동과 재정 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회계 역할 : 재정을 걷고, 기나 팀이나 조의 재정을 관리하여 대략의 예산을 세우고 예산에 기초하여 돈을 사용한다.(구체적인 예산은 리더, 교수님과 세운다.)

(2) 조직

2기의 경우, 부원이 없고 부장 김지성 홀로 회계, 총무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조 리서치 때는 각 조의 회계(총무부가 아닐 수도 있다)를 세운다.

(3) 준비물

회계 장부(전체회계), 계산기, 리서치 기간동안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작은 허리가방(기간 중 항상 몸에 소지), 많은 봉투, 공동 재정 관리를 위한 통장(2기의 경우, 국민은행 통장(후원금을 위해)을 만듦)

(4) 활동 보고

1) 10주 훈련 기간

- 1기의 지원금으로 회계활동 시작
- 2기 회계가 세워지기 전에는 섬김이가 했으나 세워진 후에는 2기 회계가 담당
- 리서치 회비

인도에서의 리서치를 위해서 1인당 리서치비 1,300,000원을 걷었다.

전체 모임때 회계의 국민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주어 계좌 이체 할 수 있게 했다.(국민 은행은 학교에서 통장정리가 가능하므로 편리하다.)

* 후원 통장은 국민 은행 계좌 번호를 알려 준다.

2) 합숙 훈련 기간

- 학교에서 훈련

- 미납 회비 건음.

리서치 회비의 경우는 액수가 크므로 미리 지체들에게 알려주어 여러 번의 마감을 통해 걷는다.

* 2기의 경우, 10주 훈련 기간의 마지막에 회비를 알려서 회비 납부가 지연되어 예산편성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3기 회계는 지체들의 재정을 의해 기도하면서 여러 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 합숙기간과 리서치 기간의 비용을 함께 계산하여서 회계를 했는데 다음번에는 합숙비와 리서치비를 분리하여서 사용을 하면 회계 하기에 좋을 듯하다.

총 수 입

수입내역	금액
1 기재정	₩600,000
지성	₩1,425,000
선연	₩1,330,000
진홍	₩930,000
훈	₩1,300,000
혁준	₩1,300,000
선미	₩500,000
청해	₩1,340,000
교회	₩200,000
MFR	₩30,000
합숙간식비	₩35,000
기사아저씨	₩20,000
계	₩9,010,000
교수님	US\$400.00
선연	US\$30.00

한국 내 지출 및 환전내역

날짜	지출내역	세부내용	금액
06 월 26 일	이동비	비행기	₩5,047,700
06 월 27 일	식비	식권 20 장	₩34,000
06 월 28 일	합숙비	합숙비	₩350,000

06 월 28 일	기타	선교사님책	₩9,600
06 월 28 일	기타	봉	₩28,000
06 월 29 일	식비	식비	₩40,000
06 월 30 일	기타	책	₩32,500
06 월 30 일	기타	필드노트	₩8,500
06 월 30 일	비자	비자	₩465,600
06 월 30 일	식비	점심	₩20,000
06 월 30 일	기타	택배비	₩5,000
06 월 30 일	기타	복사비	₩400
06 월 30 일	이동비	차비	₩2,300
06 월 30 일	기타	사진	₩16,000
07 월 01 일	식비	아침	₩8,280
07 월 01 일	식비	저녁	₩10,000
07 월 02 일	식비	식권	₩17,000
07 월 02 일	이동비	차비	₩1,500
07 월 02 일	식비	간식비	₩4,830
07 월 02 일	식비	간식비	₩5,550
07 월 02 일	식비	식비	₩4,000
07 월 03 일	식비	식비	₩1,800
07 월 03 일	식비	식권	₩17,000
07 월 03 일	식비	식비	₩5,000
07 월 04 일	이동비	차비	₩30,000
07 월 04 일	기타	구급약	₩20,800
07 월 04 일	기타	잡화	₩16,950
07 월 04 일	환전	1000 불	₩1,197,180
07 월 04 일	기타	복사비	₩12,000
07 월 04 일	기타	제본비	₩11,000
07 월 04 일	이동비	차비	₩90,000
07 월 04 일	이동비	차비	₩10,000
07 월 05 일	기타	비디오테이프	₩20,000
07 월 05 일	기타	계산기	₩3,000
07 월 05 일	기타	Sinitizer	₩7,000
07 월 05 일	식비	식비	₩6,000
07 월 05 일	기타	백팩커버	₩35,000
07 월 06 일	기타	설탕	₩2,400
07 월 06 일	이동비	차비	₩2,000

07 월 06 일	식비	라면	₩10,000
07 월 06 일	기타	잡화	₩10,000
07 월 06 일	기타	잡화	₩10,400
07 월 06 일	이동비	차비	₩7,000
07 월 06 일	이동비	공항세	₩70,000
07 월 06 일	환전	1000 불	₩1,209,400
	기타	기타	₩95,310
	총		₩9,010,000

출국 전 현황

수입	₩9,010,000
지출	₩9,010,000 미화 2030 불 보유

인도 현지 환전

미국달러	인도 루피
US\$1,280.00	R 57,871.00

인도 내 지출 내역

날짜	지출내역	세부내용	금액
07 월 08 일	식비	물	R 70.00
	숙박비	호텔	R 600.00
	이동비	기차	R 2,555.00
	이동비	릭샤	R 150.00
	이동비	택시	R 1,100.00
	식비	식비	R 1,100.00
	기타	가방	R 170.00
	이동비	릭샤	R 100.00
	식비	바나나	R 30.00
	식비	물	R 24.00
07 월 09 일	식비	식비	R 174.00

07 월 10 일	이동비	릭샤	R 80.00
	숙박비	호텔	R 500.00
	기타	전화	R 90.00
	식비	식비	R 202.00
	이동비	릭샤	R 35.00
	식비	물	R 34.00
	식비	라시	R 24.00
	식비	물	R 36.00
	식비	과일	R 60.00
	식비	라시	R 18.00
07 월 11 일	식비	아침	R 226.00
	리서치비	리서치비	R 90.00
	식비	음료	R 70.00
	이동비	릭샤	R 72.00
	식비	저녁	R 327.00
	식비	물	R 42.00
	식비	콜라	R 42.00
	기타	시트값	R 30.00
	이동비	릭샤	R 65.00
	식비	식사	R 392.00
07 월 12 일	이동비	릭샤	R 40.00
	기타	전화	R 198.00
	식비	과일	R 60.00
	식비	물	R 28.00
	현금	교회	R 600.00
	숙박비	호텔	R 1,050.00
	현금	남병진	R 3,000.00
	현금	John	R 1,000.00
	이동비	릭샤	R 40.00
	숙박비	호텔	R 850.00
07 월 13 일	이동비	릭샤	R 40.00
	식비	과일	R 60.00
	이동비	차비	R 490.00
	이동비	릭샤	R 20.00
	이동비	릭샤	R 40.00
	이동비	기차	R 1,064.00

	식비	과자	R 70.00
	이동비	릭샤	R 90.00
	식비	음료	R 90.00
	기타	전화	R 14.00
07 월 14 일	현금	한바울	R 1,000.00
	현금	마리아	R 500.00
	이동비	릭샤	R 300.00
	식비	물	R 20.00
	이동비	릭샤	R 85.00
	이동비	기차	R 2,191.00
	숙박비	호텔	R 400.00
	식비	식사	R 440.00
07 월 15 일	식비	물	R 24.00
	식비	식사	R 64.00
	식비	아침	R 200.00
	기타	자물쇠	R 70.00
	기타	전화	R 212.00
	기타	전화	R 292.00
	식비	점심	R 236.00
	리서치비	옷	R 1,470.00
	식비	음료	R 32.00
	식비	식사	R 329.00
	기타	전화	R 78.00
07 월 16 일	식비	식사	R 237.00
	식비	음료	R 66.00
	기타	머플러	R 600.00
	리서치비	옷	R 800.00
	이동비	릭샤	R 70.00
	리서치비	옷	R 200.00
	리서치비	가이드비	R 100.00
	식비	점심	R 364.00
	식비	케익	R 150.00
	식비	저녁	R 124.00
	이동비	차비	R 37.00
	식비	물	R 36.00
	식비	음료	R 24.00

07 월 17 일	식비	아침	R 206.00
	이동비	배	R 100.00
	식비	음료	R 30.00
	숙박비	방	R 800.00
	식비	음식	R 25.00
	현금	영배	R 500.00
	이동비	릭샤	R 40.00
	리서치비	옷	R 2,000.00
	이동비	릭샤	R 43.00
	식비	식사	R 214.00
	이동비	릭샤	R 80.00
	기타	자물쇠	R 170.00
	식비	물	R 24.00
	현금	아이	R 15.00
07 월 18 일	기타	전화	R 8.00
	식비	빵	R 140.00
	이동비	릭샤	R 110.00
	이동비	릭샤	R 180.00
	식비	과일	R 40.00
	리서치비	옷	R 180.00
	식비	식사	R 215.00
	식비	식사	R 204.00
	식비	음료	R 36.00
	이동비	릭샤	R 40.00
	식비	물	R 24.00
	식비	물	R 48.00
07 월 19 일	식비	빵	R 64.00
	식비	잼	R 52.00
	식비	음료	R 45.00
	식비	바나나	R 15.00
	이동비	릭샤	R 40.00
	식비	물	R 12.00
	이동비	릭샤	R 90.00
	식비	음료	R 53.00
	이동비	릭샤	R 40.00
	리서치비	레드포트	R 315.00

	식비	물	R 39.00
	식비	음료	R 40.00
	리서치비	1 조	R 254.00
	리서치비	사리	R 270.00
	리서치비	2 조	R 421.00
	이동비	릭샤	R 360.00
07 월 20 일	식비	물	R 36.00
	식비	음료	R 45.00
	식비	빵	R 64.00
	이동비	릭샤	R 150.00
	현금	교회	R 500.00
	이동비	릭샤	R 25.00
	이동비	릭샤	R 60.00
	리서치비	복사	R 80.00
	기타	전화	R 60.00
	식비	물	R 36.00
	이동비	기차시간표	R 30.00
	이동비	릭샤	R 110.00
	이동비	릭샤	R 170.00
07 월 21 일	식비	빵	R 31.00
	기타	전화	R 42.00
	식비	음료	R 65.00
	숙박비	방	R 1,875.00
	이동비	릭샤	R 160.00
	이동비	버스	R 640.00
	식비	기타	R 103.00
	이동비	릭샤	R 250.00
	숙박비	방	R 2,000.00
	식비	음식	R 190.00
	식비	바나나	R 39.00
07 월 22 일	식비	아침	R 160.00
	기타	전화	R 300.00
	이동비	기차	R 970.00
	식비	점심	R 300.00
	리서치비	1 조	R 80.00
	리서치비	2 조	R 103.00

	리서치비	1 조	R 150.00
	리서치비	3 조	R 146.00
	식비	저녁	R 1,040.00
	식비	릭샤	R 59.00
	식비	물, 빵	R 52.00
07 월 23 일	식비	음료	R 64.00
	리서치비	3 조	R 160.00
	이동비	릭샤	R 104.00
	리서치비	2 조	R 200.00
	리서치비	1 조	R 82.00
	식비	저녁	R 240.00
	식비	물	R 20.00
07 월 24 일	식비	아침	R 105.00
	숙박비	방	R 1,000.00
	기타	신발수선	R 20.00
	기타	전화	R 214.00
	식비	점심	R 120.00
	식비	아이스크림	R 36.00
	리서치비	옷	R 1,200.00
	기타	선물	R 600.00
	이동비	이동비	R 200.00
	이동비	릭샤	R 48.00
	식비	음료	R 95.00
	식비	식사	R 60.00
	기타	전화	R 30.00
	식비	식사	R 550.00
07 월 25 일	숙박비	방	R 750.00
	기타	짜이	R 500.00
	식비	바나나	R 20.00
	식비	아침	R 80.00
	기타	목걸이	R 180.00
	기타	가죽가방	R 530.00
	숙박비	방(재권)	R 250.00
	리서치비	룽기, 띠	R 200.00
	이동비	차비	R 370.00
	기타	해나	R 2,060.00

	식비	음료	R 138.00
	이동비	차비	R 120.00
	이동비	릭샤	R 20.00
	기타	MK 교제	R 350.00
	식비	애찬	R 164.00
	이동비	릭샤	R 180.00
	이동비	차비	R 400.00
	식비	물	R 45.00
	이동비	공항입장료	R 200.00
	식비	물	R 100.00
	기타	전화	R 110.00
	식비	음료	R 10.00
07 월 26 일	식비	초콜렛	R 140.00
	총		R 57,871.00

현금내역

김바울선교사님	US\$100.00
이재권	US\$100.00

인도 출국 전 현황

이월	US\$2,030.00
수입	US\$400.00
지출	US\$1,480.00
잔고	US\$950.00

홍콩환전

미국달러	홍콩달러
US\$250.00	HK\$1,812.50

홍콩내 사용

07 월 26 일 투어	HK\$400.00
07 월 27 일 현금	HK\$300.00
07 월 28 일 택시비	HK\$500.00
총	HK\$1,200.00

홍콩 달러 에서 원으로 환전

홍콩달러	한국원
HK\$612.50	₩100,400

미국 달러에서 원으로 환전

미국달러	한국원
US\$ 700.00	₩805,000

한국 입국시 재정현황

잔고	₩905,400
----	----------

합숙기간 비용

내용	금액
식사	₩40,000
차비	₩250,000
우편비	₩2,580
병원비	₩45,000
병원비	₩3,440
병원비	₩2,080
병원비	₩6,300
차비	₩1,500

청해생일	₩14,000
음료	₩5,500
식비	₩15,000
개인식비	₩350,000
총	₩735,400

합숙 후 재정현황

수입	₩905,400
지출	₩735,400
잔액	₩170,000

6. 평가 및 제언

- (1) 섬김이들과의 대화가 부족하여 일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처리가 중복되거나 진행되지 않는 등의 사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들을 잘 처리 할 수 있었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 성장 할 수 있었다.
→ 섬김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하여 처리한다.
- (2)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로 시작하고 끝내기를 원했지만 잘 못 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 (3) 여권 및 회비등을 걷을 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다음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 충분한 시간을 주고 계속적으로 광고하여 상기시키고 좀 더 적극적으로 걷는 것을 권장한다. (모든 일에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처리하도록)
- (4) 여권을 만드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여권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광고한다.
- (5) 1기와의 재정분리가 일찍 되어서 자체적으로 재정을 관리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정을 사용할 때마다 바로 장부를 정리해서 깨끗이 재정 마무리를 했다.
- (6)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임할 수 있었다. → 전체 재정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한다.
- (7)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하므로 다른 부서처럼 서로의 삶을 나누기 보다는 일에 우선하여 교제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다. → 하나님안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
- (8) 일들에 바빠서 각자의 훈련받는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10주 훈련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행정 처리를 끝내서 10일 합숙때는 훈련에 집중하도록 한다.)

- (9) Name tag을 충분히 만들어 짐 관리를 철저히 한다. 그리고 공동집은 항상 같이 한 곳에 모아둔다. 여권걸에 이름표를 붙여서 신원 확인에 편리하게 하도록 한다. (여권 집도 준비한다.)

7. 기도제목

- (1) 모든 일처리에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지체들을 섬기세 하소서.
- (2) 하나님을 찾는 데에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일하는 과정에서 상처 받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위로 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 (3) 전체 재정에 대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하심대로 채워지게 하소서.

4. 미디어부

목 차

1.미디어부의 목적과 필요성

2.미디어부의 주요 역할

3.미디어부의 구성

4.미디어부 활동 내역

5.평가

6.제안

1. 미디어부의 목적과 필요성

미디어란 글로만 구성되는 것뿐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을 활용하여 만든 정보를 불특정 대중에게 공적, 간접적,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사상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불특정 대중보다는 특정된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이에 미디어부는 글로만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여 생생한 화면과 사진으로 현장감을 주어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이나 다녀온 사람 모두에게 아웃리치의 생생한 은혜와 감동을 시청각적인 부분으로 느끼게 하여 단순히 글로 남겨지던 기록을 최근 멀티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 자료로 보관하고 보는 사람으로 쉽게 그 땅에 다가가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한다.

2. 미디어부의 주요역할

- (1) 미디어부는 필드에서는 동영상과 사진의 촬영을 돌아와서는 편집을 담당한다.
- (2) 촬영은 단순한 찍는 작업이 아니라 스토리 혹은 분류에 따라 움직이고 활동해함.
- (3) 생생한 현장감과 필드에서 느낀 하나하나의 감동을 남기고자 노력해야 한다.
- (4) 촬영자는 촬영을 우선시 해야 하겠지만 다른 지체와 마찬가지로 사역에 충실해야 한다.

3. 미디어부의 구성

- (1) 미디어부장: 김진홍
- (2) 동영상 촬영: 구선미
- (3) 사진 촬영: 김진홍
- (4) 편집부원: 김진홍, 구선미

2. 미디어부 활동 내역

(1) 아웃리치 출발 전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의 강의가 학기 중 토요일에 계속 있었다. 아쉽게도 단 한번의 참석도 하지 못했다. 다만 참석자의 조언을 조금 들었다.

1) 구도

- 피사체의 close-up 시에 정면일 경우 피사체의 얼굴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을 중심으로 한다.
- 왼쪽을 바라보는 피사체의 경우 오른쪽에 피사체를 두고서 촬영한다.
- Close-up 을 멀리서 촬영하는 것보다 더 활용한다. (4:1정도)

(2) 인도에 도착 후

1) 각 지역으로 이동 시

6mm 캠코더는 구선미자매가 김진홍형제는 개인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리서치 때

총 3조로 나누어져서 리서치에 임했는데 이때에 미디어장비가 캠코더, 카메라 각 1개씩이어서 한 조는 장비 없이 리서치에 임했다.

(3) 저장 작업

디지털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들은 진홍형제의 노트북에 날짜 별로 분류하여 저장하였고 비디오테이프는 구선미자매가 네임 태그를 붙여서 관리하였다.

(4) 아웃리치 후 편집작업

필드에서의 감동을 다시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

3. 평가

- (1) 촬영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고서 촬영자의 필드에서의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즉 촬영자 본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의 촬영은 의미가 없다.
- (2) 미디어를 다룰 때 매 순간 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보다 하나님 당신의 일하심을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라는...)
- (3) 사진의 경우 현지 사람들의 모습 즉 종족의 분류에 충실하지 못함이 아쉽고, 생생한 표정을 많이 잡아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

4. 제안

- (1) 미디어팀은 필드 리서처로의 자각에 가장 회의가 들 수 있는 사람이다.

- 1) 남들은 맘껏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같이 중보기도할때도 촬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

(2) 필드로의 출발 전에

- 1) 필드로의 출발 전에 리더십에서 원하는 편집후의 자료형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종족에 관한 동영상이라면 미디어 팀이 리서치 팀과 같이 다니기보다는 팀 자체의 촬영의 시간이 필요하다.

(3) 자료의 스토리나 분류의 기준

- 1) 위의 얘기와 비슷하지만 자료의 스토리나 분류의 기준이 먼저 명확히 정해져 팀원들 안에 확실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편집을 항상 생각하며 촬영에 임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영상의 전체적인 스토리 구성이다.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어야지 어떤 장면이 필요한지 생각해서 카메라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장소로 이동

- 1) 장소로 이동하면 우선 어떻게 찍을 것인가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이전에 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숙지해야 할 것이다. (모스크의 경우라면 조심해야 할 필요와 찍어야 할 것들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5) 기술적인 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우선을 알면 된다.

- 1)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5초이상 잡아야 한다. 그래야 편집에 쓸수 있다.
- 2) 가능한 한 흔들리지 않도록 양손으로 꼭 붙잡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립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 3) 캠코더와 카메라의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고 기능을 최대한 적절한 시기에 쓸수 있도록 준비한다.
- 4) 단, 너무 조잡한 기술은 오히려 나중에 편집을 어렵게 하고 또한 왜만한 기술은 편집프로 그램에서 작업 할수 있으므로 크게 카메라 기술을 쓰진 않아도 된다. 기술보다는 간단한 화면상의 구도만으로도 충분하다. (피사체의 close-up 시에 정면일 경우 피사체의 얼굴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목을 중심으로 한다. 왼쪽을 바라보는 피사체의 경우 오른쪽에 피사체를 두고서 촬영한다. Close-up 을 멀리서 촬영하는 것보다 더 활용한다. (4:1정도))
- 5) 편집 프로그램은 어도비 프리미어를 많이 사용한다. 가까운 선배나 책을 통해 숙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는 촬영시와는 반대로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이기에 확실하게 많은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6) 효율적인 방법 선택 필요

- 1) 미디어 부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가장 프리라이더(할일이 없어 빈둥 빈둥 노는 사람)가 생기기 쉬운 팀이다. 또한 혼자만의 작업을 해야만 하는 팀이다.
- 2) 특히 편집의 경우가 심하다. 이 경우에 모든 팀원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할 일이 없는 팀원들은 다른 팀을 도와준다. Ex) 문서팀)

제 7장

전략 보고서

1. 무슬림들에 복음 전달 통로로서의 전략

(1) 여성의 가정 사역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남자가 이슬람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를 찾기가 힘든 이유가 다른 남성들을 만날 때 비즈니스 위주의 만남을 가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들고 반면에 여성들은 서로 친해지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전할수 있는 통로를 찾게된다. 여성이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가정사역에 주된 역할(Main role)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2) 무슬림 사역에 있어 친구를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 무슬림사이에서 단지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사이는 진정한 친구라고 보기 힘들다. 집에 초대 받아서 식사하면서 함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고 볼 수 있다. 무슬림사역은 친구가 없으면 사역이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는데 친구관계 형성은 사역에 앞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 문화적 접근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사하란푸르에서 무슬림 사역을 하고 계신 사모님께서서는 힌두 문화인 코걸이(의미- 남편에게 신뢰를 받고있고 착한 여자)를 함으로써 이들과 문화적으로 친근해 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신다. 각 사회마다 다른 문화속에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서로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슬림 여성들의 큰 문제점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다. 신뢰가 형성되면 심지어 성적인 문제까지도 나누게 된다. 몇몇 여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 보기도 하는데 호기심을 갖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답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가장 자연스럽고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한다. 친구로서 신뢰관계가 구축된 상태에서 참 진리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전개된다.

(3) 여성을 위한 사역

무슬림의 많은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남성에 비해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많은 여성들이 영어나 컴퓨터를 배우기 원하지만 결혼전에는 자신의 가사일을 하느라 기회를 얻기가 힘들고 결혼 후에는 더욱 어려워진다. 여성을 위해 컴퓨터나 영어를 가르치는 센터를 연다면 효과적인 것이다. 재단이나 요리 교육도 좋다. 물론 처음에는 교육을 받기에 머뭇거리고 다가오기 어려워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을 통해 직,간접적으

로 복음을 전한다면 좋을 것이다. 주로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올 때 지혜롭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4) 성경적 접근

무슬림은 성경적 지식이 적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한 정확한 말씀을 나눌 때 효과가 크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 교회가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고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지역 교회에서 제자 양육이 바로 되고 기독교인이 그들이 오해하여 믿고 있는 성경 지식을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라고 믿는다. 실재 주위로부터 전해들은 대략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무슬림들에게 성경에 근거한 역사와 사실을 전할 때 그들이 놀라며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경우가 있다고 현지 사역자님께서 코멘트 해주셨다.

(5) 비즈니스적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

주로 작은 마을을 볼 때 무슬림과 힌두가 반반 나누어져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우리는 형제라고 말하지만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 힘든 부분이 많다. 심지어는 무슬림 사람이 힌두 사람의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꺼리기도 한다. 단적인 예로는 힌두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데 무슬림 사람들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식사를 함께 하기에 힘들다. 하지만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돈이 되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서로 문화나 종교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다. 비즈니스 접근 방법이 있다면 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6) 그들의 문화를 잘 분별하여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무슬림의 눈에 비치는 기독교인은 말씀을 바꾸고 성적으로 정결하지 못하며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기독교인은 영화나 텔레비전을 통해 비쳐진 부도덕한 서양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인식이 되고 있다. 이들이 개종한다는 의미는 다른 문화를 따른다는 의미이다. 무슬림은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그 속에서 다른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기 힘들다. 개종한 사람들이 무슬림 사람들과 따로 사는 것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금식, 여자와 남자와 따로 지내는 것, 모자, 수염, 하루에 다섯번 예배드리는 것, 돼지고기 먹는 것, 의복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예배형식이나 문화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못한 문화를 철저히 분별하고 조심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서양 문화를 마치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냥 무조건 주장해서는 안되고 그들의 문화와 크게 동떨어지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2. 사역자가 되기 위한 자세

- (1) 선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이다. 무슬림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인 우르드어와 그들이 말하는 신의 언어인 아랍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언어와 문화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알아야 문화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예를 들어 ISA(아랍어로 예수님) 크리스찬 용어로 GOD(하나님)인 한편 힌두 용어로는 ISA이다. 서로 동일한 대상에 대한 용어의 의미가 달라서 서로 대화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영어로 다가가는 것은 서양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란에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슬람의 단어를 통해서 접근해야 효율적이다.
- (2) 언어와 문화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화적으로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힘들것이다.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위의 항목에서 언급한 언어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과 접촉하기를 꺼려한다. 새로운 사람이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그 지역에 들어왔을 때 집을 얻기조차 매우 힘들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전략을 통해 그들에게 접근하며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른 문화권 속에서 처음 3개월 정도는 긴장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은 된다. 그러나 적응이 된 상태에서 문화적인 충격이 더 크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서 침실에 들어오는 문제에 있어서 남인도는 그것이 결례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노크 없이 방에 들어와서 앉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이 문화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Skin tax(피부색깔이 달라서 받는 부당함)의 경우 같은 인도사람이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힘든데 전혀 다른 외국인이 왔을때에는 아주 힘들수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문화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근접하게 어울려 사는 것을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 (3) 2년정도는 다른 사역보다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한다. 또한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 10년이상을 전도한다 해도 2-3명 정도밖에 전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장기적으 사역을 해야 한다. 전도된 소수의 2-3명 정도의 현지인을 잘 훈련하여서 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슬림 사람들을 대할지를 알기 때문이다. 무슬림 전도사가 필요하다.

3. 각 지역에 대한 전략

(1) 다르방가

- 다르방가에는 하수, 홍수, 쓰레기, 전기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도시 계획을 해야 하며 대규모 제방 공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부의 의지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하르 주 정부가 다르방가의 필요를 보고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도와 주정부와 연계할 수 있는 NGO단체들의 적절한 활동이 요구된다.
- 이 곳에서는 관계사역이 중요하다. 그냥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기 보다는 장기 사역이 필요한 지역이다.
- 다르방가는 베다철학과 우파니샤드 철학과 산스크리트어의 발상지로서 대학이 있다. 이와 같은 특색을 갖춘 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이 곳 대학으로 유학을 와서 인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베다 철학을 공부함으로써 인도를 배우며 이 곳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도 좋다.
- 그 무엇보다도 다르방가 사람들의 삶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며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사하란 푸르

- 목공을 주로하는 이들의 작업환경은 톱밥 가득 날리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다. 사하란 푸르에 병원을 가지고 있는 한 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은 작업환경으로 인한 폐통병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들에게 좀 더 나은 목공 환경을 마련해주며 이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아주 효과적인 접근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바라나시

- 바라나시는 세계적으로 관광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으로 인도 내지인에게도 상당히 인기 있는 관광지다. 수많은 관광객들은 많은 인생의 문제를 들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이 곳에 온다. 갠지스강에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몸을 씻고 있는 사람들 중의 상당수와 배를 타며 그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관광객이다. 이들을 향한 사역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음의 공허함을 안고 무엇인가를 찾아 방황하고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인도의 수 많은 우상들에게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선교 센터를 지어 한국인 여행객들이 쉬어 갈 수 있는 안식처로 만들어서 여행에 대한 좋은

정보를 주기도 하며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부분의 사리 만드는 무슬림들이 사리 만드는 법을 배우기 위해 센터로 간다고 한다. 기독교 마인드로 운영되는 사리 교육 센터가 생겨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4) 델리

- 자마마지드
 - 영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역으로 영적인 중심지, high place이다. 한편, 인디아 게이트 주변은 정치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일의 시발점이 되는 이 두 중심지를 위해 영적 전쟁하며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들의 영향력이 끊어질 것이며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본국에서 중보기도하는 것은 현지의 사역 만큼 중요할 것이다.
- 니잠무딘=리더, 선생되는 자들의 변론
 - 선생님의 특강 시간을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성경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없기에 성경에 대한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성경에 대해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선생되는 자들을 변화시킨다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